

엄신형 대표회장 발대식 “미래 한국, 예언자적 각오로 최선을 다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9일 서울 성내3동 중흥교회에서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기념행사조직위)’ 발대식을 갖고 예언자적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는 한기총 임원 및 위원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조직위 헌편식을 가졌다. 기념행사조직위는 엄신형 대표회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이강평 집행위원장, 한영훈 사무총장, 한기체 대변인을 비롯해 20명의 상임본부장 등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 회관 확장본부, 국가경제 살리기본부, 순양원 목사 기념사업본부 등 8개 특별사업본부도 구성했다.

예배는 백장홍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김



요셉 목사(공동회장)의 기도와 박홍자 장로(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으로 조용기 목사(영예회장)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수 1:1-9)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최나중 목사(공동회장)가 헌금봉헌기도 후 은퇴목회자를 위한 헌금시간을 갖고 최희범 목사(총무)가 약력을 소개한 후 엄신형 목사가 취임

인사를 했다.

이어 우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득 전 국회의장, 황우여 국회의장, 김자연·임인식 한기총 명예회장 등이 축하했으며, 윤석진 교수의 축가 후 지덕 목사(명예회장)가 축도했다. 또 이웃 돕기 사랑의 쌀성금 및 은퇴목회자 위문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등은 축전을 보내 엄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발대식은 이강평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엄신형 목사가 조직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

하고, 조직위의 기를 집행위원장 이강평 목사에게 수여했다. 이어 조직위원들은 조직위 사무총장 한영훈 목사(공동회장)의 인도로 선서식을 가졌다. 이 날 한기총 20주년 사업을 주관할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조직위원회 위원들은 영적각성 운동의 전개,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국민화합을 성취, 창조질서 보존과 생태계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 등을 통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어 취임에 배 및 발대식에서는 축하화환 대신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마련한 쌀 1천 포대를 기독교재해대책본부본부장 김범곤 목사에게 전달했으며, 예배헌금은 은퇴목회자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조직위원의 선서가 있었다.

Jesus 기록논단

지금은 물 한바가지를 더 부을 때

요즘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국가와 기업, 가정 모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긴급히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곤두박질친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신 스스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심고 투자해야 한다. 성경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거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심고 투자해야 할 때다.

어려서고 조급한 사람일수록 거들이 악예만 관심이 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다. 한 국경제 뿐 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한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와 생산적인 투자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인재양성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다면 결코 대량의 실업자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불안은 곧바로 가정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 중소기업도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투자의 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옛날 시골마을에는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라는 기계가 있었다. 펌프질을 할 때, 펌프에서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펌프를 빠져 나온다. 그런데 잠시 펌프질을 멈추고 나면 펌프에 고인물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그래서 새롭게 물을 끌어올리려면 물을 퍼다 부어야 한다. 가라앉은 물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물을 퍼다 붓는다. 중단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퍼부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펌프질을 해야 한다. 한참 후, 펌프질을 하면 가라앉았던 지하수물이 힘차게 위로 밀려올라오는데 시원한 물이 올라온다.

이 물은 먹을 수도 없고 세탁용으로도 쓸 수 없다. 이를 다시 펌프에 붓는다. 그리고 펌프질을 계속하면 드디어 맑고 깨끗한 생수가 올라온다.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다가 잠시 멈춤이 있고, 그러다가 가라앉은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다. 곧 부으면 된다.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각자 자신의 처한 분야에 아깝지 않게 부어야 한다. 예를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해외로 나가는가? 더 이상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 한바가지만 더 부으면 될 것을 쉽게 포기해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 마지막 물 한바가지 조차 없을 때일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아직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디베라 광이에 수 천 여명이 식량문제에 봉착했다. 하지만 그곳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투자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의 주머니가 더 굳게 닫혀있다. 있는 사람들이 더 없는 것을 한다. 그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모아 놓은 것을 고스란히 지키는 것으로 보장 받으려 하지 말고 경제회복을 위해 펌프에 쏟아 붓는 마지막 물 한바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돈이 균형을 잃고 일부 특권층 부유층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단 기간 내에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동산 투기와 단타적 금융시장 또는 소비성 분야와 사행성향락산업에만 집중하다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치고 빠지는 식의 불건전한 기업윤리 의식이 결국 우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퇴락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에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부동산투기와 사행성 소비 향락문화 산업을 근절시키고 내수 경제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집중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증대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군소도시의 산업 및 농수산업 발전에 전력(펌프질)을 하고 필요한 만큼의 물(투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마지막 물 한 바가지를 더 붓는 지혜가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할 때임을 잊지 말자.

평안교회 장성현 목사 본지논설위원

감리교 한국교회의 위상을 참담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감리교단 감독들, 김국도 목사를 따르지도 택하지도 않았다

불법을 일삼는 감리교, 향후 감리교 판세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지난 2월 6일 오후 발생했다. 감독교의 구성원인 연회 감독들이 김국도 목사가 소집한 감독교의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감독교단회에 김국도



▲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목회자들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목사가 참여하는 것을 불허한 것이다.

감독교장실을 완력으로 접수한 김국도 목사는 지난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교장 김국도’ 명의로 연회 감독들에게 감독교회를 소집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몰라도 김 목사가 소집한 일시 및 장소는 6일 오후 5시 본부 감독교회의실로, 지난 달 21일 임영훈 감독(남연회)이 소집한 감독교단회와 장소(코리아나호텔 일식관)만 다를 뿐 일시는 같았다. 지난 3일 감독교장실 접수 후 가진 기자회견서 김 목사는 “본부 감독교회의실에서 감독교회를 마친 후, 코리아나 호텔에서 식사를 하겠다”면서 자신이 소집한 감독교회의의 성공적 소집을 확인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침내 찾아온 운명의 시간, 국내

10개 연회 감독들 중 이날 개인적 사정이 있는 정관수 감독(경기연회)을 제외한 9명의 감독들은 김국도 목사가 소집한 감독교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게다가 임영훈 목사가 소집한 감독교단회에 김국도 목사가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음으로써 김국도 목사의 감독교장직 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국도 목사의 향후 행



▲ 부상당한 감리교 본부 여직원...안타까운 일이다.

보에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이날의 감독교회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김국도 목사가 소집 감독교회의의 불법성을 항의하며 시위하는 본부직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두 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양측의 충돌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0여명이 더 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분리시켜 서야 잠잠해졌다. 감리교 본부에 전경들이 싸움을 말리는 존국이.. 이후 본부 직원들은 복도에서 찬송을 부르며 행정기획실과 회의실에 있는 김



▲ 경찰들이 양측을 갈라놓자 충돌은 멎었는데

목사 지지자들과 대치하기까지...

본부 내의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김국도 목사는 감독들의 감독교회의 불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오후 4시 좀 지나서 본부를 빠져 나가, 코리아나호텔 14층 어디엔가 머물며 감독교단회(이하 간담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감독들이 ‘간담회는 김국도 목사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할’에 따라 김 목사는 간담회 참석을 포기하고 대신 장동주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보내 지난 선거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감독들의 반대에 부딪혀 접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김국도 목사의 간담회 참석을 확인하려고 하던 ‘반 김국도 진영’ 목회자들과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 신도 장로가 다쳤고,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아닐 수 없다.

회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감독들은 소란을 틈타 오후 6시 25분경 자리를 떠, 인근 프라자 호텔로 옮겨 간담회를 계속했고 많은 애기들이 오고갔으나 몇몇 감독들의 의견대로 특별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오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싸움을...식당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부상자가 발생했다.

후 8시 30분 경 끝이 났다.

감독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부 16층에서 경찰들 사이에 두고 대치중이던 본부직원들과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은 오후 9시 20분경 김국도 목사 지지자 일부만 감독교장실에 남고 양측 모두 철수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이 철수했고, 이어 본부직원들이 철수했으며 마지막으 경찰들도 철수에 급박했던 감리교 본부의 2009년 2월 6일이 마감됐다.

한편 고수철 감독회장은 미주연회 뉴욕지방 선교대회 인도 및 미국연합감리교회와의 업무 협력을 위해 지난 5일 출국,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장로교와 더불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위상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상을 참담하게 추락시킨 목사로 소위 감독들인데...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생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도하며 울며 애도하며 웃음을 애도함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야고보서 4:8-9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현장 2009 아바드 리더컨퍼런스

ABAD LEADER CONFERENCE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

..... 강사 이경은 목사 프로필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연합종문 회 이사 역임
-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 및 대학원 명예 기독교 교육학 박사(Ed.D)
- 국제 우드스탁 스쿨(Woodstock School) 명예부무(현)
- 국회 정치인·경제인·목회자 연합회 총재 (현)
- 아바드선교회 이사장(현)
- 연세대 기독교 총연합회 총재 (현)
- 아바드리 더시스템 교육원장 (현)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남 지방회 회장(현)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현)
- ▶ 수상 경력
- 뉴스피플 2007 대한민국 혁신 경영인 대상(종교계 부문) 수상
- 헤럴드경제 2007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인물(종교인 부문) 수상
- 서울신문 VISION 2007 화제의 인물 선정
- 2008 정한 한국인 상 대상 수상(뉴스웨이 신문사 주최)
- 대한민국 선진 경영 대상 수상(경영신문 주최)
- 목회대상 수상(한국부흥사회의회 주최)
- 자랑스런 연세인 연선원상(선교부문) 대상 수상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를 세우는 아바드 리더시스템!
 원망, 불평 없이 100% 순종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컨퍼런스

저는 성소를 공경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 있게 하며, 자녀를 성공시키는 꿈”
 이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2009 아바드 리더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사모가, 부교역자가, 성도가, 자신이 용사가 됩니다.

주최 _ 순복음진주초대교회 / 전국대표전화 _ 1644-8291(빨리구원) / www.fgcdc.org

일 시 2009년 2월 23일(월) 오후2시~25일(수) 오후4시
 장 소 청원진주초대교회(T.1644-3927)
 대 상 목회자 및 모든 성도
 등 록 비 11만원(2월1일부터 당일까지), 속식 본인 해결
 등록방법 인터넷 신청 후 입금하시면 등록완료
 www.abadleader.org
 접수문의 T.1644-8291(빨리구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필객의 붓이 되리라”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전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Jesus Times)와 크리스찬포터 저널(christianphotojournal) 등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방송을 지난 2007년 10월 25일 등록, 2009년 1월 22일 신년하례식을 맞아, 본지 발전에 주역이 되어 주신 고문, 상임이사, 운영이사, 논설위원, 지방경찰청에서 복음화를 위하여 깊은 뜻을 안고 기도해 주신 사무총장, 지사장,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엔 자랑스러운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선교를 위하여 좀 더 일한 복음사역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뛰는 기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필객의 붓이 되리라” (시 45:1)는 언론인이, 그 본질이 변질되어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불신 받는 언론이 되고 있기에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모 교단 총무는 교단행사와 교회의 행사를 광고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또 행사에 달게는 40~50명의 기자가 오는데 그 중에는 끝까지 남아서 교통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협박과 욕문자료를 사용하고 있기에,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언론과 공생

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엔 우리 언론이 한국교회에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필객의 붓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무릎꿇고 기도하면서 만드는 신문과 방송이 되겠습니다. 영리목적에 위하여 불의를 행하며 몰지각한 언론이 아니라 진실한 언론, 본질을 왜곡되지 않게 정론지로서의 가치성을 지니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뛰는 영적인 언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문, 상임위원, 운영위원, 논설위원 기자 여러분, 지저스타임즈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언론사 선배들이 지퍼놓은 문서 전도적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 나아가 기독교적 본질 그대로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세상에 뿌린 씨앗을 온갖 진저대로 퍼 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해 쉽게 따져 갈 것을 다짐 또 다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필객의 붓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가 파급되고 부흥해 가까지는 인쇄술의 발전을 통한 문서의 위력이 뒷받침되어 왔고, 세계 유례없는 성장을 보여준 한국교회 역시 문서와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부흥을 일궈왔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혁신적 변화의 바람이 부는 한 시점에서 문서와 방송을 통한 언론이 지켜내고 감당해 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성찰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방송, 언론은 기독교를 대변하며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기독교 안의 화합을 꾀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분명히 밝혀 두기는 본지와 방송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언이설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경계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터 저널 방송은 고명하신 어른들을 모시고 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편축을 갖고 두고 필객의 붓이 될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쉬어 썩듯이 부흥의 빛을 잃은 교회는 정체되고 만다는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으며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정론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올바른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인터넷을 통한 신문방송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22일 신년사에서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신년하례회 예배

이사장 전영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등
76인에게 추대패와 위촉장을 전달

지저스타임즈(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와 크리스찬포터저널(www.cpj.kr)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구로구청 앞 바이킹해물뷔페에서 신년하례회 예배가 있었다.

전국에서 많은 이사들과 지사장 등이 참석하여 신문사와 직원들을 격려, 축복하며 1부 예배에 한국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사장 소진우 목사가 기도를, 부이사장 정바울 목사가 성경봉독을, 업무국장 정태중 목사가 찬양을, 이사장(독립문신학교 교수) 전영춘 목사는 “문서선교와 인터넷신문 방송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한 미스바 회개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 할 것을 직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바로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본지 발행인)는 2부에 들어가 지금껏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전파를 위한 문서선교에 뜻을 같이하고 분사발전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76인을 초청 각인에게 추대패와 위촉장을 아예와 같이 전달했다.

지저스타임즈는 아래와 같이 76명을 추대했다.

상임고문 추대장
상임고문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양교회, 세계부흥사협의회 총재)
고문 추대장
임철환 목사(갈보리교회), 최중립 목사(도곡교회 원로), 김용진 목사(동산교회), 이정우 목사(한인사회이사), 이원석 목사(은광교회), 박복수 목사(조치원장로교회), 장창수 목사(오산광성교회), 웨신 증경

총회장), 정재규 목사(대석교회), 장영기 목사(예신총회장),

이사장 추대패
전영춘 목사(독립문신학교 교수)
부이사장 추대패

정바울 목사(방주축복교회), 장창운 목사(한국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사장 추대패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사장 추대패
현병우 목사(임마누엘 선교교회),

민충만 목사(세계선교중앙교회, 마하나임 대표회장),

상임이사 추대장
권세는 목사(평택 주천성교회), 박남수

목사(시온교회, 총회 총무), 김동탁 목사(소광교회, 총회 총무), 오종설 목사(홍성

제일교회), 고성규 목사(다니엘교회), 박양우 목사(한사랑교회, 대전경찰청 사무총장), 전현규 목사(세계로교회), 신문규 목사(대전지치대대학교 학장), 김봉주 목사(오산반석교회), 최남복 목사(장안명성교회), 이홍규 목사(지구촌교회), 심재호 목사(벨라비아교회), 신인창 목사(성암교회, 웨신총회 서기), 박순종 목사(서울에일

신학교 학장), 백승대 목사(은혜교회) 임평소 장로(주.에우알 대표), 정민호 사장(금호상조회 대표),

운영이사 추대장
정재현 목사(수원연합전도대학장, 새순교회),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김병호 목사(열두광주리기도원), 강신숙 목사(사론교회), 서명범 목사(공덕교회), 임원택 목사(노원교회), 김상익 목사(산돌교회),

곽완근 목사(두란노교회), 김동기 목사(말

씀운동본부장), 지상설 목사(성경쓰기본부장),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 정일량

목사(한기보문교회 중앙노회 노회장) 이기신 목사(양문교회), 장사명 목사(종성한교회), 전봉화 목사(동성교회), 송미순 목사(영광교회) 손달임 사모(선교협회장, 김원조 성도(갈보리교회), 문영열 권사(성경쓰기운동본부), 손우진 집사(회사원), 배근욱(건축설계사), 김민수(회사원),

논설위원 추대장
지영철 목사(동서울교회), 장승현 목사(당진 평안교회), 최재철 목사(서산갈산장로교회) 김주원 목사(한국성경적성당지회 대표회장), 조영길 목사(백석문화대학교 교수), 장관설 목사(예신 한국개혁신학연구원 학장, 신학박사), 박철호 목사(주문화교회), 최동수 교수(사신학 교수)

전국지사 추대
대전 충청지사장 라영수 목사(지사장), 전남 목포지사 지사장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해외지사 우간다 지사장 김기일 선교사, 호주 지사장 이종수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정형선 목사, 일본 지사장 정동용 목사(동경개혁신학교 학장), 태국 치앙마이 지사장 전승수 선교사, 대구 경북지사 이상락 목사(대구아미 구호팀 사장, 생명교회), 강원 춘천지사 박경애 목사(춘천축복수양관)

본사직원
편집부장 김구리(나래이미지 대표)

광고국장 송순희 기자
업무부장 정태중 목사

사무부장 전향희 기자

편집부



청년들의 기도운동 모임 개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16일부터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기도의 용사 “예수 군대”가 일어난다.

그 동안 국가의 어려운 고비마다 금식으로 기도를 해 왔던 청년들이 오는 16일부터 5일간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 수양관에서 1500여 명이 모여, 예수 군대 캠퍼런스(Jesus Army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 행사의 주관은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이며, 동 단체는 매주 월요일 기도모임, 금요일 야기도회를 해오고 있으며, 신촌에서는 매일 철야기도회를 실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연합 기도운동을 펼쳐 왔는데, 그 해 1월 4일 7000에스더 단식 성회, 3.1절, 6.25동란, 8.15광복절, 10.3개천절 등 국가의 중요한 때를 기하여 연 인원

수만 명의 대규모 금식 성회를 개최해 온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남한의 영적 부흥과 북한 주민의 구원, 그리고 타 문화권에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과격 종교에 의한 폭력과, 무신론 사상과 유신론 논쟁에 휩싸이고 있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때에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국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주제는 Charge My Life & Change the World 이다. 이번 캠퍼런스의 강사로는 김준근 목사(CCC 총재)를 비롯하여, 전직집사사 총재 이윤구 장로, 한동대 김미영 교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 모퉁이들 선교회 이 사신교사, HIM 디렉터 박호

종 목사, 미국 가스펠펠로우쉽 교회 성현경 목사, 이슬람권 선교사 신철범 선교사, 천안 인도에는 배워지파니스트리 스캇 브래너 목사가 그리고 현대사포럼회장 이선교 목사, 요릭스토리 정성산 감독 등 2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기도의 목적은 청년들을 예수 군대로 만들어,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주님의 용사로서 거침없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홈페이지: www.jesusarmy.kr)

The Jesus Times
www.cpj.kr

추 경제회복선교센터 김호일 목사 총재 취임



경제회복선교센터 회원 조직

고문 : 장수석, 이성균, 신세웅,
이주호, 김복음 목사
지도위원 : 이준철, 홍성호 목사,
홍보위원 :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예술위원 : 류재정 장로
후원이사 : 백승길 목사
총재 : 김호일 목사

부총재 : 김미순, 노베드로 목사
대표회장 : 이나단 목사(퍼시픽개혁신학)
상임이사 : 권준근, 김승배, 김광은 목사
운영이사 : 김민희, 한지혜, 고은혜 목사
상임회장 : 강사랑, 함은숙, 김광옥,
최순길 목사, 허일권 장로,
김동균 장로

실무위원 : 김종숙 강도사, 백남철
서기 : 이정선 목사
총무 : 우재학 목사
회계 : 이형욱 목사
사무총장 : 양성민 목사

경제회복선교센터 / 퍼시픽개혁신학

대표전화: 02)3273-4001 / 교무과: 02)3211-2001

H·P: 010-9343-5652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45-8

경축 오바마 대통령 취임 축하 기도회

미합중국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을 경축하는 세계 평화 기도회가 지난 1월 19 일 오후 1시 CTS-TV방송국 11층컨벤션 홀에서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사)세계 NGO선교사 연합회, (사)세계 선교단체 총연합회 주최와 세계 대통령 당선취임 축하 예배위원, 세계평화봉사단의 주관과 CTS-TV, 국민일보, 인터넷 복음방송, 기독교 언론사의 후원을 받아 성대히 경축행사가 이루어졌다.

(사)세계 선교단체 총연합회 대표의장 허근영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신성한 목사가 평화기도회 취지문 낭독과 피종진 목사가 대화장 인사에 나섰다. 이어 이길자 목사가 대표기도를, 피은혜 목사가 성경봉독을, 특별찬양에 토티, 가수, 김중호 선교사, 김사라 목사 등이, 김용실 목사(합동 직전총회장)가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박영봉 목사의 헌금기도를 김민희 목사가 헌금을 위한 찬양을, 국제마약퇴치아

데미 총재 조일환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께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고, 장로교단연합회 사무총장 부진철 목사가 세계평화인류구원을 위한 기도문, 김해 세계로교회 장기호 목사는 미국 오바마대통령을 위해서, 일산침례교회 허경옥 목사는 이경박 대통령을 위해서, 인천 열방교회 박요한 목사는 UN반기문사무총장을 위해서, 충남 남포중앙교회 백용규 목사가 주한대사들을 위해서, 선교교회 유병태 선교사는 한국정치인들을 위해서, 인천 한기로운교회 유성은 목사는 한국경제를 위해서, 초대교회 이관능 목사는 남북통일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인천 열방기독교인 라온희 목사는 한미 평화우호를 위하여, 충주 사랑의기독교인 이기쁨 목사가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각각 기도 에 나섰으며, 이어 한기춘 대표회장 임신형 목사, 전주바울교회 원필연 목사 등이 축사를, 남서울중앙교회 레이디 싱어스, 브니엘중앙단 손인사 전도사, 유령해 국악선교단 등이 축가를, 새서울 선교교회 권오성 목사가 연혁보고를, 준비대회장 권오성 목사가 인사소개와 광

고를, 다함께 통성기도로 행사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CTS-TV사목 박천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세계 평화기도회 취지문

성경 답전 2:1~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따라 2009년 세계 평화인류구원과 경제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치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44대 오바마 대통령께 드리는 평화 MESSAGE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독교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화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도 지

구존 국가 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평화의 사도가 되시어 21세기 인류평화에 큰 공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류의 평화와 세계 빈곤 국가의 기아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7000만 한 민족의 염원인 남북 평화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세계 종교지도자와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계적 관심사인 마약퇴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류의 적이 라 할 수 있는 마약범죄의 퇴치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더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마약 유혹으로부터 온 인류가 자유롭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독교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구상에 이루는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통령 각하의 건강하심과 미국 국민의 평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한국기독교 교인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2009년 1월 19일

왕성교회 2009 신년축복성회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왕성교회) 김자연 목사는 2009 신년축복성회를 지난 1월 18일 주일저녁부터 23일까지 왕성교회 분당에서 가졌다.

18일 주일 저녁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요삼1:28) “전인구원”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해 성도들로 많은 은혜를 끼쳤다.

19일 저녁에는 지킴 목사(강남 제일침례교회)가 강사로 (요11:39-44절)“믿음에 부요한 자”란 말씀을, 20

일 저녁에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를 강사로 (대상 4:9-10절) “생명의 지경을 넓히자”란 말씀을, 19일(월)~23일(금)까지 담임 김자연 목사가 강사로 나서 새벽마다 “새벽을 날개치며 올라가자”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23일 저녁 금요집회에서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성도들로 많은 은혜를 끼친 집회가 됐다.

목양칼럼

삶속에 새 힘과 지혜를 심는 메세지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 시인, 목회학박사

지난 주 화순지역 연합집회를 마친 날 밤, 저는 토사곽란으로 아주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허탈함을 새겼어요. 그날 저녁에 먹었던 오리고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상한 토마토를 잘못 먹었는지 저녁 내내 설사를 줄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몸살까지 난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목소리도 안 좋지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익산에 가서 호남지역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러 가야하는데 몸 상태로 보아서 사실 도저히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약속을

지켜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얼굴에서도 땀이 나고 뒤통에서도 땀이 철철 흘러넘치니까 뒤에 앉아있던 사 회자인 고창중앙교회 전대홍 목사님이 잠시 제가 말씀 좀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소 목사님이 토사곽란 때문에 온갖 고생을 했는데 약속을 지킨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땀이 철철 흘러넘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라리 젊은 목사님 오늘 조금 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서 강의를 하다가 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진짜 땀이 얼마나 안 좋은지 온 몸이 비 오듯 땀이 쏟아지고 잠깐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배려를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도설 수가 있습니까? 그 날 저녁에 여 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한국교회의 밤’에서 언론총판위원장으로서 크리스찬 기자들에게 상을 주어야 하고 또 나도 공로상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요. 행사를 마치고 와서도 설 수가 있습니까? 깊은 밤까지 금요철이기도 준비해야 하고 또 컬럼도 써야 하고 금요일 날 졸음이 있는 심방을 해야 하고 또

침이기도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 쉬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서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서, 몇 달 전부터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소목사야, 내가 쉬라고 하지 않느냐? 쉬는 것도 나를 위한 사람이고 네가 잘 먹고 건강을 돌보는 것도 나를 위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느냐? 너 혼자 죽을 등 살 등 뛰어다니면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그러니 너의 몸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감동이 마음을 울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것이라 면 내 몸 아니라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뛰어 왔습니다. 살인적인 일정을 감내하고 소홀하면서 뛰어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님이 이런 것을 칭찬을 하시더니 요즘은 별로 칭찬을 안 하세요. 오히려 책망할 때가 많아요. 정권사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직접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가서 강해 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한 내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중재 수도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4단계로 설명했었습니다.

정화 단계, 영적 대각성의 단계, 하나님과 나와서 합일한 삶의 단계, 완전 성숙의 단계이지요. 특히 중재시대

영성의 진수를 보여준 성 버나드는 ‘하나님과 나의 합일의 삶’을 다지 4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신비한 주님과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위한 내 사랑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욕망적 자기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를 위한 주님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와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형신학적 입장에서 형성된 신앙의 초창기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셋째, 주님을 위한 주님 사랑의 단계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단계도 주님과 완전한 합일의 단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넷째, 주님을 위한 내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완전한 합일의 경지에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과 합일의 경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밟고 나를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숨 쉬고 먹고 마시는 주님과 깊은 합일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주님 위한 내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성도들 앞에 미안해서 실전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폐인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내 사랑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 먹는 것 쉬는 것 운동하는 것 시간 내서 몸을 돌보는 것도 주님 사랑이다. 앞으로도 수십 년을 내가 뛰어야 할 텐데 몸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위한 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한 내 사랑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내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몸과 건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에덴교회와 소목사를 위한 길이고 주님



의 행복이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내 사랑도 하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고 그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위한 내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니까요.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갑니다.

011-9027-9712



담임목사 장 승 현



대/한/예/수/교/장/로/회 평 인 교 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 · P : 011-9027-9712

인터넷, 총회신학,신,편입생, 모집 (남,여) 목사안수, 교단가입

- ◆ 본 총회신학연구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가입된 교단입니다.
- ◆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명자를 위해 전원 장학제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 ◆ 직장인을 위해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줄이기 위해 인터넷 통신으로 공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도사 · 목사 · 후보생 · 모집

- ◆ 전도사 시취 강도사 안허 목사안수
- ◆ 타신학교 졸업자 상담후 목사안수
- ◆ 초교과 신,편입생, 수시입학
- ◆ 전원 장학제도(1학기당 10만원)
- ◆ 인터넷 통신으로 수업가능함
- ◆ 1년 4학기 방학없이 조기졸업
- ◆ 장로 및 사모님은 4학년으로 편입함
- ◆ 일반대학 졸업자는 4학년으로 편입함
- ◆ 대한예수교장로회(한기총 가입교단)
- ◆ 총회신학연구원 WWW. 7777.or.kr



이사장 정민철 박사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 세계선교센터 원장
- * 국제치유목회연구원
- * 회장 (개혁총연) 경기
- * 원장
- * 한국부흥사협의회
- * 총회신학연구원 이사장
- * 대표회장
- * 한국전도훈련원 원장
- * 남서울 축복교회 담임

문의 : 032) 342-7171, 010-3224-234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7-6 지하철 중동역 2번출구 앞

여의도순복음교회 IPTV 시험방송 시작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IPTV 시험방송이 21일 시작됐다.

순복음PTV는 오는 5월 공식 개국할 예정이다. KT메가TV 888번을 통해 24시간 방송된다.

IPTV 시험방송 감사예배에서 이영훈 담임목사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복

KT메가TV 888번서 24시간 방송

음전파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지난 50년간 복음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우리교회가 또 다른 부흥 50년을 시작했다. 교회는 복음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며 “IPTV를 통해 전도와 신앙교육의 새장을 열자”고 말했다.

IPTV 방송을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지금은 VOD(Video On Demand)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는 5월부터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마련된 방송프로그램은 조영기 원로목사·이영훈 담임목사의 설교와 구역공과, 기도, 성경대학, 사회 복지 활동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또한 주일스크린 및 선교교집 등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각종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앞으로 SK브로드밴드TV와 LGmyTV에서도 방송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복음방송을 접할 수 있을 예정이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③ 가능성



백석문화대학 조영길 교수 (본지 논설위원)

파아티 고르스키는 금세기 첼로의 으뜸가는 노장(老將)이었다. 그가 무명의 신인으로 첫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의 바로 앞 자리에 당대 세계적인 첼로의 거장 카잘스가 앉아 있음을 보고 간장하는 바람에 연주가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도 연주가 끝나자 카잘스가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를 치므로, 청중들도 따라 치게 되었다.

파아티 고르스키가 첼리스트로서 일류가 된 후 카잘스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박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다. 카잘스는 첼로를 가져 오라하더니 어느 한 대목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연주했소. 그때 목의 소리가 수십 년 동안 내게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바로 당신의 소리였소.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배웠으니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그래서 박수를 보냈던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첼로의 노장에게서 우리기 배울 수 있는 것

예능의 자질은 기존의 이론이나 스승으로부터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 자질의 조기 발견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능의 자질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모들은 별다른 생각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잘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첫째, 자녀의 생각과 요구에 귀 기울여라.

둘째, 자녀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라.

셋째, 자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넷째, 자녀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하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자질의 발견과 그것의 집중적 개화(開花)에 두고 부모의 바른 교육적 자세와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8:1-11참조)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당시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이야기이다. 이 사건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그 여자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냉엄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랑을 보이며 관대했다. 즉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이 되었으며 자기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범죄를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만 따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롬3:23)과 아무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마7:1-5)을 깨우쳐 주셨다. 결국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내담자)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는 상담이라 할 수 있다.

상담자는 인간의 잠재력이 그들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전체 상황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잠재력은 발견되어야 하는 어떤 고정된 성질의 것이 기도 하지만, 역동적이며 발전적이며 변화하는 시냇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 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저스타임즈

www.cpj.kr 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D-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이사와 논설위원과 해의지사
발행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D-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상임고문 : 피종진 목사(남서울총신교회)
이 사 장 : 전영준 목사(동신교회 원로목사)
사 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 사 장 : 현명우 목사(임마누엘성교회)
본사편집부장 : 김규리 (나래이미지 대표)
전국지사
대전지사 이사장 : 박인우 목사(대전경향청 경복위원회 상임총무)
대전 총정지사장 : 라영수 목사(지사랑) 전교회 사모(부 장)
전남 목포지사 지사장 : 조광호 목사(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해의지사
우간다 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 정영선 목사
태국 치앙마이 지사장 : 전승주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일본 지사장 : 전동훈 목사(동경신학교 학장)

본부 업무국 부장 : 정태웅 목사
본사 이사회 사무국 : 전교회 부장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영삼공회) 12층
본지인터넷신문방송 www.cpj.kr (E-mail:webmaster@cpj.kr)
전화:070)8230-0032,0034, 02)741-0031, 02)407-6574, 팩스:02)763-0221
대표 : 011)468-6574

구로구 교구협의회 2009 신년하례 가져



구로구 교구협의회(회장 정영근 목사)에서는 지난 1월 19일 아침 7시 구로구청 지하식당에서 구로구 교구협의회 주최 및 구로구청신우

회, 구로구보전신우회, 연희미용고등학교, 개봉동기업은행, 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 개명경서농협 후원으로 이루어진 구로구 교구협의

회 신년하례 및 조찬기도회가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준비위원장 김승복 목사(부회장)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서기 조경석 목사가 기도, 회계 남경희 목사가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고, 구로지구 여신교회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이어 부회장 박재욱 목사는 “새해엔 기도하며 살시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회장 정영근 목사, 양대웅 구청장의 신년사가 있었다. 또한 고문 조규준 목사, 고문 박현모 목사 등이 격려사를, 구로갑이배과 의원, 지도위원 김영희 목사가 각각 축사에 나섰다.

이어 부회장 정영기 목사는 나라

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총무 김태곤 목사는 구로구 발전과 교회 복음화를 위하여, 지도위원 최순길 목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불들을 위하여, 협동총무 조종환 목사가 세계 경제와 평화를 위하여, 신우회고문 이상은 장로는 구로구청 교구협의회 및 구청신우회 부흥을 위하여, 감사 김성현 목사가 남북통일과 굶주린 북한동포를 위하여 각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가 광고와 교회 및 내빈 소개를 하고 구로구청 최동욱 국장은 예배에 동참한 구청 직원 등을 소개하고, 지도위원 서재석 목사 축사로 마쳤다.

청어 이야기

토인비 박사가 자주 쓰는 이야기 중에 청어 이야기가 있다.

북양에 청어를 잡으러 가는 배들이 돌아올 때는 청어를 얼음에 얼려서 운다. 이유는 청어가 성질이 급해서 배에 끌어 올려놓고 싣자마자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선장이 살아있는 청어를 항구로 가지고 와서 비싼 가격에 팔아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비결이 궁금하였고, 그 선장에게 그 비결을 알려 달라고 매달리게 되

었는데, 절대 비밀에 붙이던 선장이 드디어 그 비결을 공개하였다. “나는 바다에 나갈 때 살아있는 메기를 물에 싣고 나가서 청어를 메기가 있는 홀에 넣는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 비결을 들은 사람들은 메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청어이고, 청어가 무서워하는 고기가 메기인데 그렇게 할 경우 청어를 메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무시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해 보았더니 10% 정도는 메기가 먹지만 나

머지 90%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했던지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구에 올 때까지 살아있게 되더라.

이와 비슷한이야기가 이견회 삼성그룹회장이 쓰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뀐다>는 책 서두에도 나온다.

고 이병철 회장께서 자주 쓰시던 이야기인데 시골 논에 미꾸라지를 키우면서 그곳에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경각심을 가져서 더 튼튼하고 큰 미꾸라지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현

The Jesus Times
www.cpj.kr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교육기관 한기총에 가입된 40년 전통의 예장(웨신) 총회인준 신학교

200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1. 모집학과 · 입학자격

과 정	학 과	학 제	인 원	입 학 자 격
평신도부	평신도아카데미 2년제	00명		사명자 및 직분자
신학부	신학과 · 목회학과 · 선교학과 · 통신신학과	4년	00명	고졸자, 동등학력 소지자 세례 받은자
석 · 박사	목회학석사(M.Div) 3년	00명		신학교졸업자 학사 소지자
	신학석사(Th.M) 2년	00명		학사 소지자 M.Div과정 졸업자
	목회학박사(D.Min) 선교학박사(D.Miss) 3년 신학박사(Th.D)	00명		목사안수 후 3년이상 목회 경력자

2. 모집일정

- 모집기간 : 08년 12월 1일(월)~09년 2월 27일(금)일/17:00
- 원서접수 : 본교 행정실
- 전형일시 : 현재 면접과 서류전형 (신앙과 인격중시)
- 전형장소 : 본교 대강의실
- 문의 : 행정실 ☎02-2691~3920)로 상담

미국문부성, 주정부, 대학협의회 인가 대학
미국 명문신학대학원 학생 모집
신교학 석사(M.A) 및 박사(D.Miss)

3.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1부
- ② 추천서(본교 소정양식)1부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 ④ 주민등록 등본(3개월이내)1부
- ⑤ 여권 사진(3cm×4cm)3매
- ⑥ 졸업 또는 제적증명서(편입생).....1부
- ⑦ 성적증명서(편입생)1부

4. 특전

- 목회학석사 과정(M.Div)은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강도사 고시후, 목사 안수를 받음.
- 졸업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총회 해외선교사 파송, 재학중 교단 산하 각 교회 전도사 파송.
- 석 · 박사 과정은 미국 명문신학대학원과 연계하여 미국 본교와 호주 시드니에서 계절학기 강의를 하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개혁신학연구원 교수로 채용함.
- 통신학과(신학부 · 대학원) 과정은 나이·학력제한 없고 능력별 졸업 및 본과 3학년에 편입.
- 평신도아카데미 졸업자는 신학부 2학년에 편입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

한국개혁신학연구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 158-09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82-3번지 신월빌딩 5층
대표전화 02-2691-3920 홈페이지 http://reformedacademy.org

기독교한국성서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 (Btshop)
-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회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 가정예배 ■



권 세 능 목사
평택주전성교회담임, 본지 상임이사

오늘의 예배 / 창2:9 선택과 책임 찬송:404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야담과 허와 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신앙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선택의 구조로 보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 이전에 선택의 문제요, 충성 이전에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선택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인생에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 롬12:9-13 열심만 있는 신앙 찬송:378

예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이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네 가지를 말

씀합니다. 먼저 가까운 형제부터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둘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셋째, 환란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 넷째, 슬픔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오늘의 예배 / 갈5:22-24 성령의 열매 찬송:178장

그리스도인들은 착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교인은 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인은 사납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같은 존재가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사납고 살기가 등등하던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세상에 더할나위 없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 요8:31-32 주님의 제자 찬송:355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물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남자의 수만 센 숫자입니다. 그런 데 그들 중에 몇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처음 믿은 사람을 신도라 했고 나중에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지 성

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 계21:5-8 지옥은 어떤 곳인가? 찬송:221

예수님은 "몸은 능히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태복음 10장 2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나고 하지만,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장 4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범죄케 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든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고 따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 요3:1-8 증애에 대하여 찬송:205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공허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공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걀이 한 번 태어났

다고 해서 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 태어나야만 닭이 되어서 볼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먹고,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탄생이라면,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두 번째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 벧전4:7-11 성김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 찬송:102

봉사란 무엇일까? 봉사란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란 의무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란 의무처럼 강요당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강령 때문에 항상 기쁨의 봉사가 교회에서 또는 사회를 위하여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며, 때로는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미와 개미, 꿀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미는 곤충이 잘 다니는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걸리기만 하면 잡아서 먹고 살므로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삶이요, 개미의 삶은 먹이를 찾아 다니며 저장하여 자기 개인의 생활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꿀벌을 다룹니다. 꿀벌은 날아다니며 꽃송이를 찾아 꽃가루를 날려주어 꽃의 번식에도 유익하게 합니다. 나아가 꽃에서 꿀을 따다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꿀벌이야말로 가장 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피 왜 이단인가? (3)



▲ 서울잠실 실내체육관 권신찬(유병인), 이요한, 박옥수 등 구원파의 여러 계파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단은 그 본성이 미혹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노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이단성을 효과적으로 숨기려 한다. 구원파는 성경을 믿는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 미혹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II. 신학적으로 구원파의 이단성은 어디에 있는가?

유병인, 이요한, 박옥수 등 구원파의 여러 계파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구원관이 잘못되었다. 회개와 믿음이 빠진 '개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 ② 회개관이 잘못되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 ③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
- ④ 정통교회의 제도(장로, 집사)와 예배 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를 무시한다.

종교와 복음,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1. 신관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닌 영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이신론적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하나님을 주로 인위적, 특히 중동정세를 주관하는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힘으로 부각시킨다. 구원파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신론적인 존재일 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섬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성을 강조하고 인격성을 부인하거나 격하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반응을 따라 난 질병 보다 숨은 질병이 더 무섭다.

심을 보여준다. 구원파의 대부분이 권신찬은 "영을 자기의 인격적인 활동과 혼돈하여 인격의 일부인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접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원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요 4:24)라는 전제하에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등 모두를 "영, 즉 양심의 활동"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영의 세 가지 기능, 직관, 영교, 양심 가운데서도 특히 양심의 기능만을 강조하여 죄책감에서의 해방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기도, 찬양, 예배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태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권신찬은 말한다. "예배는 형식을 갖춘 의식이 아니라 영의 동작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예배의 형식은 이교도의 제사의식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원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의 인성을 무시하거나 극히 경시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구원파의 이단성은 역시 그들의 구원관에 있다.

2 구원관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였다. 그러므로 구원문제는 기독교의 최초의 문제이면서 최후의 문제이기도 하다. 구원파에서도 죄사함과 구원을 강조하나 이들은 다른 의미의 구원을 전하고 있다. 구원파는 특히 구원론에서 결결로 빠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이단이다. 이런 점에서 구원파는 이단 중의 이단이다. 대개 이단은 구원론, 종말론, 그리고 신비주의를 중심으로 생겨난다.

모두가 어렵지만 '희망'을 노래하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 중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바닥이다” “못 살겠다”고 야단이지만 “景氣가 바닥을 치고 오르다”는 희망, “나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舊正이 시작되는 25일 날 아침에 무척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 항상 하는 새벽산책길을 나서며 새하얗게 내려 쌓인 눈을 밟았습니다. 눈 위에 처

음으로 발자국을 내는 ‘뿌듯함’은 해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에게 똑 같은 눈임에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찍 고항에 가고자 차를 끌고 길을 나선 이들에게 지금의 눈은 지겨울 것입니다.

차의 진행을 가로막아 시간을 지체시키기에 아마도 “눈이 징글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어떤 이들은 지금의 눈이 반가울 것이고 “윤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같은 사물일지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마름पर्기기에 따라 천양지차가 납니다. 당초 미국 發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파탄에 빠져들었고, 이제는 실물경제를 뒤흔쳐 너도 나도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세계적기업인 삼성전자가 33분기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니 지독한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너 나 없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난리법석이지만 조만간 세상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부지리로 먹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정직하고 항상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금번 경제위기에서도 갇히게 살아남 것이고 희망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계를 얻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처럼, 불경기가 있으면 호경기가 올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돼 있듯이, 참고 견디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송인용대기자

주보는 교회의 얼굴! 우리교회 주보 우리가 만들어요!!!

컬러디지털(주보)복합기



COLOR 203
■ 분당 컬러, 흑백 20매 고속 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P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세계최초, 최대 1m20cm출력



COLOR 252/352
■ 분당 컬러, 흑백 25/35매 고속 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P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특별할인가 ₩1,199,000 → ₩790,000



매직칼라 2490MF

- 살아있는 생생한 컬러 색감
 - 2400×600dpi의 인쇄 / 복사 해상도
 - 정밀하고 선명한 인쇄 품질의 simitritona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저렴한 유지비(4,500매 고용량 토너)
 - 흑백20매, 컬러5매의 분당 인쇄속도
 - 월 권장 출력량 35,000매의 튼튼한 구성
 - PC없이 직접 사진 출력
 - FAX 기본기능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기능
- 다이렉트 포토 프린트

전자종 디지털 주보인쇄기



DP-3217P

- 분당 50-180매의 초고속 인쇄
- 반 영구적인 뛰어난 내구성
- 고효율, 저비용(1장 1원에 도전)
- 고해상도 사진/문자 인쇄
- PC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접지기·중철기



중철제본 & 접지기

- B5-A3까지 중철제본·접지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하는 간격 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5779-0691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종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1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사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종로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로제동 51-3(100주년기념관 옆)
Tel.02)762-8572 Fax.02)764-5893

전국어디서나 1588-0691
크리스챤 사업부
02) 2065-2580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47-9 영광빌딩
Tel.02)2065-1004 Fax.02)2065-1005

■ 8가지 기능을 한대로!
■ 모든 부서 인쇄물을 한 대로 ok!

www.jubo114.com



경기도소방본부, 2008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경기소방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에 이어,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역량을 겨루는 자리에서도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둬 경기도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을

길)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하는 「2008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 훈련」 평가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의 대상이 된 훈련은 소방

본부가 지난해 9월 26일 안양시청에서 실시한 대테러 폭발사고를 가정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소방력 중심의 초동대처 능력과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사태수습·복구 등 뛰어난 대응체계를 선보여 현장을 방문한 평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훈련을 관람한 도민들에게도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내실 있는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박기표기자

정월대보름 “오곡밥”, 현대인의 건강 웰빙식으로 단연 으뜸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잊혀져가는 정월대보름 음식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식품에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웰빙식으로 적합한 식품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고, 앞으로 작곡프로젝트를 통하여 국민의 녹색식생활을 뒷받침하고 농업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월대보름 음식의 의미와 종류

정월대보름에는 “상원절식(上元節食)”이라 하여 귀밝이술(이령주)을 마시고 오곡밥과 묵은나물(진채식)을 먹고, 부럼을 까먹었다. 오곡밥은 신라시대 까치에게 감사하며 정월대보름 제사상에 올린 약밥에서부터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약밥에 사용되는 잣, 밤, 대추 등의 귀한 재료를 구할 수 없었던 일반 평민들이 약밥 대신 찹과 콩 등의 다진 가지 곡식을 넣어 오곡밥을 지어 먹는 데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찹쌀, 팥쌀, 팥, 자조, 찰수수, 감정콩, 찰기장, 보리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중 찹(찹쌀), 콩, 팥, 수수, 조 등이 일반적이다. 묵은 나물은 호박, 가지, 무시래기 등 최소 9가지 채소를 잘 갈려두었다 겨울철 원기를 북돋기 위하여 대보름에 기름에 볶아서 먹는 나물을 말하고, 부럼은 정월 보름날 밤에 깨먹는 잣·넉밤·호두·은행·팥·콩 등의 견과류를 말한다.

오곡밥·생활습관병 예방 및 건강 장

수식품

오늘날 오곡밥은 웰빙 건강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 1인당 오곡밥 섭취량은 240ml로 찹밥을 한공기(250ml) 섭취했을 때보다 열량은 1/5 적게, 칼슘과 철은 2.5배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도정 과정에서 쉽게 손실되는 비타민 B2를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쌀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생활습관병 및 비만 예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오곡밥 재료들에 대한 건강 기능성 효과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 쌀은 이소플라본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아 폐경기 중후군,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중앙 및 스트레스트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기병 예방에 좋으며,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는 나이아신 이 쌀보다 약 2배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 감정콩은 껍질에 토코페롤,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항암,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만예방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 조는 필수 지방산 섭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정장작용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수수는 면역증진,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묵은나물(진채식, 陳菜食) -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 보충

- 묵은나물은 호박고지, 박고지, 말린 가지, 무시래기, 고사리, 고비, 도라지, 취나물, 고구마순 등 최소 9가지 나물들을 여름이나 가을에 잘 말려두었다가 대보름에 기름에 볶아서 먹는 음식으로 이는 겨우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여 원기를 북돋아 줌으로 그 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게 도와준다.

부럼 - 노화방지 및 콜레스테롤 저하

- 호두, 팥콩 등 부럼을 깨무는 건 과묵는 주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동시에 암을 억제하는 물질인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폴리페놀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암예방 효과가 있으며,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능성이 뛰어난 작곡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웰빙 건강식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녹색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웰빙작곡 생산 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북 봉화, 충북 괴산 등 4개 지역을 기능성 작곡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박기표기자

경제위기 극복위해 경기도 노사 하나됐다



경영자는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과 이에 따른 고충분담을 함께 한다는 내용의 경제계와 노동계의 대타협 안이 경기도에서 발표됐다.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화수 의장, 경기경영자총협회 조용이 회장,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 우봉재 회장, 경인지방노동청 최준섭 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심동섭 청장, 경기도의회 전진규 경제투자위원장 등 경

기도내 노사관계인사 30명은 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 모여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경기도 노사정 대타협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사람중심 경기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 따라 경기도와 노·사 양측은 앞으로 경기도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 산하 사업장별로 공동선언의 실제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

로 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는 산하 620개 노조 116,33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경기 경영자 총협회에는 1,288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경기도 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경기도 사람중심 노사정 협력모델’은 사람이 희망이며 사람만이 살길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이라며 “경제위기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사람에 있다는 인식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환경 조성, 노동자의 생계안정,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교육과 훈련 기회 확대를 통해 상호 노력하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기도 노사정 협력모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 김문수경기도지사와 참석자들이 화합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와 노동자, 경영자의 이번 협력모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각

면저 ▲ 노동계는 일자리 유지에 필요한 일자리 나누기운동과 이에 따른 고충분담 및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경영계는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종업원 교육훈련을 실시, 노동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체 장기근속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보육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해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 고용보험제도등의 혜택이 확대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계에서 실시하는 재직자 직무교육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연계 중소기업 R&D사업 지원, 기업 판로확장과 수출증대 지원 등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박기표기자

지나친 언론보도 왜곡, 기독교 편하로 감정의 골 깊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기독교 혼란기가 지나치다. 지난 1월 17일자에서 ‘연합뉴스’는 “한국 개신교 목회자 44명 다게스탄 행(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여력제한’ 구적으로 지정한 러시아의 다게스탄 지역에 10명의 목사를 포함한 44명이 이슬람교와 치안 불안 지역으로 선교를 위해 들어갔다는 보도이다.

그러면서 2007년의 아프간에서의 분당 샘플교회 목사단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 ‘공격적 선교’라는 용어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를 받아서 KBS, MBC, SBS, YTN,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헤럴드경제, 불교신문, 뉴스엔조이 등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였다.

연합뉴스는 17일에 해당 선교단체 인터콥으로부터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받았다. 즉 목회자는 한명도 없다는 것, 인원이 44명이 아니고 22명이라는 것, 그리고 다게스탄 지역이 봉사활동을 하기엔 절대적으로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오후에 쓴 제2선에 서도 위와 같은 내용들은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제3선에서는 숫자와 ‘목회자’라는 말은 뻔 대신, ‘개신교 신도들의 봉사활동을 조직한 선교 단체는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테러와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터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다.

연합뉴스는 20일에도 “개신교 공격적 선교 논란 재연”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두의 보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22일에도 한국인이 떠난 다게스탄 지역이 치안이 불안한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한국의 기독교(개신교) 봉사에 대하여 보도하는 사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한국교회를 싸잡아 공격하는 사설들이 빈번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교회는 교인들 중 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기억이 있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이다. 그래서 교인들의 외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조심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이번 연합뉴스의 보도는 사실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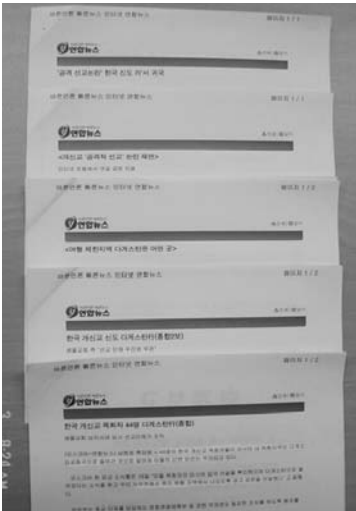
과 함께 한국교회를 더욱 욕되게 하였다.

‘봉사’도 ‘공격적 선교’로 확대해석하고, 확인도 안 된 목회자들로 표현하는가하면 숫자도 부풀려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갖도록 하고, 기독교에 대한 편파로 이어지도록 한 것은 의도성을 뻔 행위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이번 문제로 기독교 안티들은 기독교 공격의 호재(好材)로 삼고 있다. 선교나 봉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이미 안티기독교를 몰고 다닌다. 더군다나 왜곡된 보도는 2중 3중의 비난을 총동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번 연합뉴스는 당사자의 정정 요구에 대하여 묵살하므로, 기독교 편파와 반기독교적 정서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 없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인터콥의 전화 항의와 지난 1월 22일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이후, 2월 2일 현재까지도 정정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합뉴스의 오보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외교통상부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합뉴스의 일방적 보도 때문인지 이를 가려야 한다.

한국 교계는 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총재: 박종순 목사)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진상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1월 30일 제60차 실행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의 교회 관련 바른 보도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표어 : 지키자 / 목표 : 교회 건축

풍성한교회 매주일 예배안내

예 배 안 내

기 관	시 간	기 관	시 간
새 벽 예 배	매일새벽 5시 30분	기 도 회	금요일 9시
주 일 낮	오전 11시	교 회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학 생 회	주일 오후 12시 30분
수 요 일 밤	저녁 7시 30분	청 년 회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절)

■담임:장사명 목사 ■반주:장선이선생

교회 주소 : 339-810 능남 연기군 서면 일하 3리 664-17

교회 전화 : (041) 862-1438 팩스 (041) 862-1437

H · P : 018-426-1438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 오전11시/오후 찬양 2시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월 · 화 영성사역: 오전11시/오후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임마누엘 선교교회

부천센터

신도회

공동선 아파트

부사골사거리

시원마을 아파트

복사골 문화센터

송내역

표준 장례예식서

기독교 장례문화 1단계 : 사별하는 사람

동서생사예문화연구소

대표이사 박철호

여름다운 사람들

다들 물어봐... 장례문화 1단계 : 사별하는 사람

동서생사예문화연구소

대표이사 박철호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필요한 책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책이 하우에도 수 십 권씩 나와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된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나와 있는 책들은 장례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교회와 관련 있는 책들이 기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일반적인 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 예식서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 장례예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인 중에 장례가 발생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장례 절차나 예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장례가 생긴 가정에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식도 그렇지만 섬교도 부담이 됩니다. 교회 중전들도 혹시나 기도하라는 지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표준 장례예식서”가 그러한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준 장례예식서”는 장례신학(掌禮神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책으로 기독교인 가정(家庭)에 한 권씩 비치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장례신학은 인간의 생명체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고 유가족이 사별지위를 하는 인간의 모든 생사(生死) 과정을 신학적으로 조망하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표준 장례예식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세울기회 이명수 장로님과 구본일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서생사예문화연구소/ 대표 박철호 목사

장례예식서 값 9,000원

아름다운 사람들 값 5,000원

가입문의 : 02-878-8800, 016-314-4734

지은이, 박철호 목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사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

• Vision University 장례신학박사 과정

•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문화교회 담임

• 동서생사예문화연구소(동서) 대표

• NPO 법인, 한국예배문화연구소 대표

• 초교파 NPO 선교기관, 주문화세계 선교 대표

• 건국대학교 장례문화학 겸임교수

• 티포(Tapho, 生死) 신학연구원 운영위원장

• 기독교 NPO 법인, 전국목회자장조 연합 상임회장

박철호 목사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 있게 하며, 자녀를 성공시키는 교회

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가 개최하는 2009 아바드 리더 컨퍼런스-2009년 2월 23일(월)~25일(수)교회가 반드시 부흥합니다. 사모, 부교역자, 성도가 용사가 됩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위치한 순복음진주초대교회(담임 이경은 목사)는 1992년 신안동 3층 2층 건물에서 개척된 이후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출석교인 1,000여 명의 교세로 성장하여 한국 교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특별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두 자녀(전나나, 전전하)를 제 44대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 컨퍼런스(U.P.I.C., 2009.11.7~21)에 초청받아 참석케 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리더로 세웠다. 이경은 목사의 자녀 교육은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평하고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이다. 이 목사는 자녀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여 신학교에서 으뜸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자녀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열심을 다해 공부하였다.

이 목사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3번 경고를 하고, 그 때 도 안 되면 직접 체벌하게 하였다. “제가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도 바느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때 저는 ‘얘들아 너희들이 바느질을 하면 손이 찢려 피를 보게 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때 도 계속 하겠다고 하면 3번까지 경고하고 마지막에는 파가 나도록 손에 바늘을 꼭 찔러 주므로 피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다림질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도 다림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때 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너희들이 다림질을 하면 뜨거움을 당하게 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때 도 계속 하겠다고 하면 3번까지 경고하고, 마지막에는 손끝을 다리미에 대어 주어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면 뜨거운 끝을 당하게 됨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세 자녀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꼭 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직접 깨우쳐 저의 말에 100%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라는 성경적인 목회 시스템이 있어 가능했다. 원랑, 불평없이 100% 순종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경은 목사는 자랑한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전도, 아바드 새가족반, 아바드 성장반, 아바드 핵심반, 아바드 청지기반, 아바드 비전반, 아바드 용사반, 아바드 사역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아닌 쉼이 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이 훈련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모, 부교역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로 세우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는 가장 탁월한 성경적인 목회 시스템이다.

이경은 목사는 평신도 시절부터 성소를 공경하고,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아내가 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고, 이것을 순복음진주초대교회의 슬로건으로 만들었다.

이번 2월 23일(월) 오후 2시 충북 청원에 있는 청원진주초대교회(구 새천년 민주당)에서 개최하는 2009 아바드 리더 컨퍼런스는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라는 주제인데, 그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2절(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막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병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



다. 하지만 이들이 다윗을 만나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은 전쟁을 진두 지휘하는 장수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대상 131-다윗이 전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그 때 서 다윗의 용사 즉, 장수의 모습 속에서 ‘이만한 장수는 없었더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경은 목사는 밝혔다.

또한 이경은 목사는 아바드 리더 컨퍼런스 개최 이유를 “교회 설립 때부터 저희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교회에 찾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오합지졸의 병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세워 나갔고, 용사의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1,000여 명의 성도로 부흥하였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였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여 년간의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의 결정체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드 리더 시스템입니다. 이 아바

드 리더 시스템을 소개하고, 교회가 부흥한 비결을 가르치고, 저희 교회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대식, 이경은 목사 슬하의 두 자녀(전나나, 전전하)는 지난 1월 17-21일까지 제 44대 미합중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한 자녀라도 꿈도 못 꿀 일인데 두 자녀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것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자녀이며, 자

갖는 자부심을 원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더 나아가 정권을 넘겨받으며 선서문을 읽을 때 대통령과 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 손을 얹고 선서했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서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과, 취임식의 마지막을 90여가 넘는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미국이 최강국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절실히 깨달았다. 미국이 최강국이 되기까지 미국은 선대들이 인정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백했던 모습 그대로 국가의 중요 행사에 반영해 하나님의 힘과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선서문에서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첫 당선 연설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했다. 역대 미국 지도자들이 늘 그랬듯, 오바마 대통령 역시 국민들에게 연설을 할 때는 연설의 내용이 무엇이었던 끝맺음만큼은 한결 같이 하나님께서 국가와 국민들을 축복하시길 바란다는 인사였다.

내셔널 물에 모인 25만 관중들의 숨죽이는 집중력을 한 몸에 받은 그는, 국민들을 ‘미국’이라고 일컬으며 ‘미국’에게 현재 국가의 상황과 위기를 인정하며 그들에게 도움, 협조, 변화와 인내를 구하면서도 회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며 떠나 갈 듯한 함성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깊게 흔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눈앞의 25만 관중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빌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길”이라는 인사를 뱉었이 건네며 관중의 환호와 함성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늘 그랬듯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국민들과 미국



에 임하길 바라며 대중들에게 늘 한결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인사를 건네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미국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국가의 행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미국인들에게 선대 지도자들과 선조들에 이어 이제는 매일같이 나누는 즐거운 인사로 자리 잡은, 편지의 당연한 마지막 안부가 되어버린 “God bless You” ‘신의 은총이 당신에게 임하길...’이라는 인사, 나도 11년 유학 생활을 하며 수 없이 써 왔던 이 인사가 오늘날과 유난히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들 통한 축복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인사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매일같이 즐겁게 주고받는 인사가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 국민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 할 수 있



▲ 외주어 우리 대한민국도 미합중국 국민들과 대통령처럼 되게 하소서(전나나)

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며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축복하소서.

전나나(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설교집 : 교정 교열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전문 교정인력과 신학전문 감수위원이 있어 주일 설교원고만 주시면 설교집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신문 : 해당교회에 맞는 기획과 원고아이템을 제공
·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과 이미지를 다양 확보
· 교회홍보와 소식지, 성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아이템 교회신문 지금 시작하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곳!
나래의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나래 이미지
Tel. 031)501-6713 / Fax. 031)501-6773
H·P : 010-2872-0496

JNTV방송(지저스타임즈)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토탈웨딩 에뚜알
(금,보석,다이아몬드 도매)

▶ 예물, 한복, 침구 신혼여행, 웨딩드레스를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금, 다이아몬드를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도매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 교회 임직 및 칠순·회갑 한복을 특별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예산을 대폭 절약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02-2272-5261, 735-5269
http://weddingtoile1.cafe24.com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관 12층 전관
(1호선 종로5가역 12번출구 도보 3분)

서울예일신학(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자(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운영

www.syeil.com

전화 02)2293-0045/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토탈웨딩 **에뚜알**

손님을 VIP로 모시는 대표 : 정기남
직통 02-741-0032, 011-468-6574

하늘나라에서 온 ‘사랑의 떡’

23일 경기 고양시의 S초등학교에서 열린 결식아동을 위한 ‘2009 굿네이버스 희망 나눔 학교’의 종강식. 한 교사가 김영희 씨의 유언에 따라 아이들에게 설날 편편을 나눠주고 있다. 이복순씨 “임으로 떠난 남편 뜻” 결식아동들에게 설 선물 “가난해 끼니 굶고 자란 남편 생전 기부-후원 앞장서 실천 각막까지 남김없이 주고 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경기 고양시의 S초등학교. 방학 중인 결식아동을 위해 마련한 ‘2009 굿네이버스 희망 나눔 학교’의 종강식이 열렸다. 교실엔 아이들이 설을 맞아 편편을 먹을 수 있도록 가래떡이 준비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떡과 백설기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들 앞에 선 선생님은 “여러분이 설날에 편편과 간식으로 맛있게 먹으라고 김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선물로 주셨다”며 아이들 손에 일일이 떡을 쥐여 줬다. 영진(가명·10)이는 “주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떡은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에게 떡을 선물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위암 투병 끝에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김영희 씨. 고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조화 대신 쌀을 받아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동갑내기 부인이복순 씨가 이를 지켰다. 이 씨는 남편의 뜻을 따라 장례식장에 ‘조화 대신 쌀로 달라’는 안내문을 써 붙인 뒤 부부의 눈에서 수확한 쌀 여덟 포대를 장례식장에 본보기로 쌓아놓았다. 장례식장에 조화는 몇 개 더 세워졌지만 쌀은 더 쌓이지 않았다. 이 씨는 쌀을 모두 아이들을 위해 기증했다. 이 씨는 “조화 대신 쌀로 내는 것이 아작은 낫설 것”이라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여덟 포대에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 씨의 기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생전에 각각과 장기간 약속을 한 김 씨는 죽는 순간까지 이를 잊지 않았다. 부인이 씨는 “장례식 때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염을 할 때 보니 눈을 동여맨 모습이었다”며 “장기는 암이 번져 거증하지 못했지만 각각 기증 약속을 지킨 것을 보고 가슴이 찡했다”고 회고했다. 농사꾼 집안의 6남매 중 장남이었던 김 씨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끼니를 굶는 일이 많았고,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을 정도로 가난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할 처지에 있던 큰아들의 친구를 데려다가 몇 년 동안 같이 지내기도 했고,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5명의 아이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또 어려운 이웃의 빚을 대신 갚아주다가 사기꾼에게 돈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 정도로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 씨는 교회의 봉사활동에 여대의 돈을 쾌척하기도 했다.

살아 있을 때 김 씨의 목표는 4명

의 아이를 후원하는 것이었다. 건강원에 물품을 납품했던 김 씨는 거래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후원 어린이를 1명씩 늘려 40명을 채우자고 아내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굿네이버스 일일 캠페인은 “떡을 먹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김 선생님의 훌륭한 뜻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덕영 기자



간디 서거를 추모하며

대동이 벌어지며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학살되자 간디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화합을 추진하다가 1948년 1월 30일 뉴델리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극우와 힌두교 신자 나투람 고드세 의 총에 암살당했습니다. 맹목적 신앙의 비이성적 마성이 폭

로되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성의 빛을 잃은 맹목적 종교는 미신이 되며 이성을 남지 못하는 종교는 초월의 빛을 잃습니다. 〈연〉 ‘하루 한대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9,10) 이주연의 산마루서신 중에서

사선을 넘어서...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7화] 北 송환돼 ‘노동단련대’로 노역하며 짐승보다 못한 생활 처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북한으로 이송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 연지의 감옥을 거쳐 북한의 무산이 가까운 변방부대 감옥으로 옮겨왔다. 작은 감방 안에는 20여명의 여인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아이들과 임신부도 끼여 있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감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흘쩍이거나 탄식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렇게 복송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여인이 물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런 조사와 고문을 받아야 하오. 나는 두 번씩이나 복송되어 간 경험에 있는데, 이번엔 틀림없이 죽일 게요.”

한 여자를 낙태시키는 등 필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지옥이었다. 중국 감옥에서의 고문도 끔찍했다. 그런 중에 복송이 돼서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팬티 속에 숨겨둔 300위안을 소중히 쥔채였다. 연지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살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스터처럼 살자!” 벽에 두 개의 글자가 쓰여 있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벽에 글을 써놓았다. 너무나 반가워 가까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금방 글씨가 없어졌

다. 내 눈을 의심했다. 사라진 글의 내용을 또렷하게 마음속에 새겼다.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밀려왔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로 감사기도가 나왔다. 그런 가운데 북한 보위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정보도 들었다. 기독교인은 발견 즉시 총살이라는 것이다. 그걸 알고부터는 아예 기도하는 티조차 내지 않았다. 이후 그 감옥에서 지낸 한 달 동안 눈을 뜬 채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 감옥에는 열일곱살 되는 소녀가 있었다. 잡혀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단다. 얼른 보기에도 정신이 아니었다. 한참 지나서 그 소녀의 사연을 알았다. 그는 13세 어린 나이에 굶주림을 못 견뎌 탈북했다가 중국의 인신매매매매에게 붙들렸다. 그러곤 그에게 강간당하고 몽골 인근의 시골로 팔려가 3년 동안 굶주림과 함께 살아야 아버지와 여섯 아들에게 매일 돌려가며 성노리게로 유린당하다 감옥에까지 끌려왔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정신이 온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감옥의 여인들은

탈북한 뒤 저마다 기구한 사연들을 가졌다. 감옥으로 실려오면서 창살이 쳐진 차창 밖으로 초라한 행색의 ‘꽃채비’라 불리는 소년들을 숨하게 볼 수 있었다. 예쁘장한 처녀 한 명이 들어왔다. 그녀도 역시 인신매매매매에게 끌려갔다가 붙잡혀 들어왔다. 하루는 감방 근무병에게 불려 나갔다. 한참 만에 그 근무병에게 군화발에 차여 다시 들어온 그 처녀는 처연하게 울었다. 강간을 당한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모두 인간이 아니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좁은 감방에서의 생활부터 그랬다. 나중에 열방에 수감된 남자들의 사연은 더하다는 걸 알았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데리고 탈북, 힘든 노역에 갖은 폭행을 견디고 끝없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눈앞에서 중국 한족들에게 희롱당하는 걸 참지 못해 악다구니를 하다 몽둥이로 얻어맞아 불구가 된 이도 있었다. 그런 사연들을 다 쓰려면 수십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이 그들과 같은 신세가 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다. 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어도비 포토샵의 기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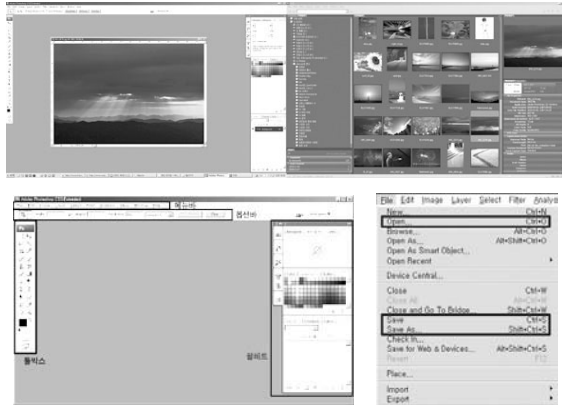
1. 포토샵의 화면구성과 이미지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2. 포토샵의 공유함인 '툴박스' - 보정작업의 기초 선택툴
3. 포토샵의 공유함인 '툴박스' - 얼굴의 여드름과 잔주름 지우기 달인 '힐링 브러시' 툴
4. 포토샵의 공유함인 '툴박스' - 포토샵에서 글자도 쓴다 '텍스트' 툴
5. 이것을 모르고서 포토샵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 레이아웃
6. 어떻게 촬영된 사진을 밝게 보정 - 'Curves'
7. 웃을 같이입히자 - 'Hue/Saturation'
8.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려면 크기를 작게 하자 - 'Image Size'
9. 효과를 주면 사진이 바뀐다 - 'Blur'와 'Sharpen'
10.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기본 과정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사라지는 가운데, 포토샵처럼 처음 출시가 오래 되었으면서도, 버전을 올릴 때마다 강력한 기능들이 포함되고, 많은 사람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프트웨어는 드물 것이다. 필자가 처음 포토샵을 대할 때 (당시 5.x 버전)만 해도 포토샵은 3D그래픽의 리터칭, 출판물 일부 전문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그 권리를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구독자는 예술가인가? 아마추어 사진가인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어도비 포토샵에 대해, 포토샵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 보고자 한다. 포토샵의 기본 연재가 끝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진을 위한 포토샵에 대해 연재를 할 예정이다. 주로 사진작업을 하는 필자는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한다. 하나의 모니터에는 포토샵이, 다른 모니터에는 촬영한 사진들을 볼 수 있는 뷰어 소프트웨어를 띄워 놓는다. 포토샵 버전은 CS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본 기능은 대부분의 버전에서 비슷하다. 활용팁: 뷰어 소프트웨어에는 cs 버전부터 포토샵이 설치될 때 함께 설치되는 Adobe Bridge와 ACDSee, 개인이 사용할 때에 한해 무료로 ALSee 등이 있고, 윈도우즈 탐색기에서도 섬네일 형식으로 이미지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림 포토샵 화면 구성

- 메뉴바 : 포토샵의 모든 기능이 들어 있다.
- 옵션바 : 툴박스에 있는 각각의 툴에 관하여 세부조정이 가능하다.
- 툴박스 : 이미지 리터칭 및 도큐먼트 편집의 도구 상자.
- 팔레트 : 이미지의 현재 작업 상태를 알 수 있으며, 포토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어 팔레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의 팔레트들이 있다. 툴박스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이미지 불러오기(단축키 : Ctrl + O) 이미지를 포토샵 화면으로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우스를 사용해서 메뉴바의 'File' 메뉴를 클릭하면 나오는 하위 메뉴 중 Open 을 클릭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 것이다. 필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뷰어 소프트웨어를 열고 원하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한 채, 포토샵 화면 내의 화씨면



으로 끌고 오는(드래그) 방법이다. 이때 마우스 포인터(화살표 모양)의 오른쪽 아래에 '+' 표시가 붙는다.

- 이미지 저장하기(단축키 : Ctrl + S) 작업이 끝난 이미지를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이다. 불러오기 메뉴와 같은 곳에 위치한다. 사진이미지 같은 경우 작업한 후에는 'Save'보다는 'Save as'라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자칫 잘못하면 원본 이미지가 나중에 작업한 이미지로 덮어쓰기가 되어 버리는 아찔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본 이미지는 항상 따로 잘 보관해 놓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보정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웅 목사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새벽 6: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찬양 기도	저녁 9:00	청년회 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 · P 010-8585-9137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충만한 교회

참 좋은 교회로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

담임목사 : 김봉주

찾아오시는 길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 · 배 · 시 · 간			
주일 새벽 예배	오전 6:00	주중 새벽 예배	오전 05:30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금요 기도회	저녁 8:3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00	주일 학교	오전 9:20
수요 예배	오후 7:3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일과 과정	오후 6(주일)	중 · 고등부	오후 9:30(주일)
다시아홀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행/복/한/사/람/들 * 예/수/인/사/람/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http://www.반석교회.kr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 선 목사

예 배 안 내		
장년부	시 간	장 소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 간	장 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건 · 강 · 한 · 교 · 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꺾고
꺾고
꺾고
꺾고
꺾고

담임 오종설 목사

041)634-0441(사무실)

041)633-9146(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 의학칼럼

건강도 심은대로 거둔다! (6)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
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
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
두리라"(갈6:7,8)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삶
의 준엄한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
것이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이다. 크리스천일수록 이 준엄한
원리를 비로 알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
요하다. 미성숙한 크리스천의 대표적
인 특성 중의 하나는 우연이나 요행을
바란다는 것이다.

인간의 죄악은 심지않고 거두겠다는
탐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 오히려 '거
룩하신 하나님'을 담보로 도박을 감행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
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은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지 막연한 "확률게임"이 아님을 명
심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낸지
시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우측 상
복부의 묵직한 통증 때문에 고민인데
이 경우 좋은 건강법이 없겠느냐는 것
이었다. 그 분은 이미 지방간으로 진

단받은바 있었다. 사실 간질환에는 안
정과 식이요법이 최고의 치료법이거
에 몇가지 권면을 하는 중에 그가 아
직도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
을 금치 못했다.

지방간은 난치성 간질환의 호사이
다. 그리고 더 이상 술을 용납할 수 없
다고 인체가 발하는 최후의 통령이다.
병을 고치려면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
다. 원인을 방치한 채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계속
술을 마시면서 지방간을 치료하는 치
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술을 뺀하든
지 지방간을 고치든지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다. 이른바 "심은대로 거둔
다"는 준엄한 성경의 원리는 건강에
있어서도 자명한 진리이다.

많은 사람이 건강의 지혜를 찾고
있으나 사실 건강의 법칙은 매우 단순
하다. 자신은 끊임없이 불건강의 씨앗
을 심으면서 건강의 열매를 기대한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기 기
만이다. 건강하려면 건강의 씨앗을 지
속적으로 심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건강은 행복과 관련이
있고 불건강은 패락과 연관성이 깊다.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지만 패락 중심의 삶은
불건강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그
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폐

락에 탐닉하게 된다. 항상 피곤하고
몸이 허약하면 매사가 귀찮아 지고 신
앙생활도 무력해 진다. 반면에 몸과
마음이 건강할수록 행복의 지수가 높
아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된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45세인 성인
남자의 경우 "금연, 절주 운동(주 3회,
하루30분)"이라는 세가지의 간단한
건강법을 실천하였을 때 대조군의 다
른 사람들에 비하여 11년의 수명 연장
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건강의 씨앗을 부지
런히 심어 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다 건강해야 한다. 이웃을 섬기는 삶에도
건강은 필수적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는 상승과 하강
이 있을 뿐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
다.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는 결
국 "불건강 지대"로 귀착되고 말 것이
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진실을 외면
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하
신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크리
스천은 마땅히 건강의 씨앗을 부지런
히 심어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성경으로 본 건강학'

전립선 비대증

이정우 박사 건강강좌

비뇨장애가 시작되면 먼저 전립선
비대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나이가 들어 고령화가 될수록 누구
에게든지 비뇨장애가 있는 것은 흔
히 볼 수 있다. 즉 비뇨장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배
뇨 장애의 형태, 장애 정도를 파악하
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증상, 특
히 야간에 취침 후에 자주 잠에서 깨
어 화장실 출입이 빈번하면 소변을
보려 해도 잘 배뇨되지 않고, 겨우 소
변을 본 후에도 배뇨 절기가 가늘어
지거나 힘이 없어서 오래 걸리게 되
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50
대 이상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
나고 있다. 가끔 지하철에 공중 화장
실 같은 곳에서 소변을 보게 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배뇨현상과 시간으
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가 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배뇨 상태
가 나빠지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중년층과 고령층의
배뇨 장애는 전립선의 비대와 전립
선암을 의심하게 되는 증세 중 하나
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이 외에도 배뇨 장애를 일
으키는 질환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
상만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배뇨 장
애를 일으키는 기타 질병으로는 방
광 경부가 굳어지는 경화 증상, 방광
경부가 좁아지는 방광 경부 협착 증,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장애, 내과적
신경질환, 척추손상, 골반내의 장기
의 수술에 의한 증세, 당뇨병 등으로
방광으로 가는 신경에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여러
증상이 있다.

야간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면
이는 전립선 비대증에 전형적인 증
세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하루 밤
에 두 번 이상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가게 되면 스스로 전립선 비대증이
라고 단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야간 빈뇨함에 자주 소변을 보



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생각 해 봐
야 할 것이다. 취침 전 과다한 수분
섭취로 인해 야간 빈뇨가 생기게 되
는 경우인데 단순한 사실인데도 깜
빕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
근 야간 빈뇨와 관계 깊은 것으로
'수면의 노화'라는 것도 있다.
'수면의 노화'에 의한 야간 빈뇨는
잠이 깊게 들지 못하므로 약간의 소
변의 느낌만 있어도 쉽게 잠에 깨어
화장실에 가는 것이다. 전립선 비대
증으로 인하여 오는 야간 빈뇨 증세
는 방광에 남게 되는 소변(잔뇨)가
원인이다. 소변이 완전히 방광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항상 남아 있는 양
만큼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립선 비대증으로 야간에 3회 이상
화장실에 가게 되는 사람은 잠들기
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도 예외
없이 3회 이상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이다.

■ 월드포커스

전세계적 기상 이변... 인류가 굶주리게 된다



소방차가 7일(현지시간) 호주 멜버
른 서부에서 125km 떨어진 지역의
버닝 셰이트 숲에 출동했다 화재진압
이 어렵자 빠져나오고 있다. 지속되
는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이 빈번한
가운데 산불로 인한 사망자만 8일 35
명에 이르렀다. /AP 연합
중국인들이 5일 중국 중부의 허난
성 지역에서 말라버린 강바닥 옆을
걸고 있다. 한 관리는 이변 겨울의 극
심한 가뭄때문에 땀샘산에 필요한 밀
공급을 감당하는 지역인 중국 북부지
역에서 밀 생산량의 43%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AFP 연합

세계가 기상 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패어난 가뭄과 폭설, 폭염, 호우 등으
로 전세계가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미국, 호주 등 대규모
밀 생산지역이 '이상(異常) 기후'로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식량난
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전망이다.
이를 경고해온 학자들과 연구기
관들은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기상 이변의 원인= 극심한 가뭄
과 폭우 등 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주
범은 라니냐라는 의견이 있다. 라니
냐의 영향으로 태풍이 제대로 발달하
지 못해 강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에스파냐어로 '여자아이'라
는 뜻을 가진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
대현상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나
는 것으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
지는 경우를 말한다.

◇中, 극심한 가뭄과 곡물가격 폭등
우려 = 중국의 주요 밀 생산지인 중
북부 지역에 100일 가까이 극심한 겨
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올해 밀 생산
량이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곡
물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정지
우시에서 거래되는 현물 밀 가격에

이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LAT)가 4일 전했다.
주 장관은 또 기후변화로 인해 캘리
포니아를 비롯한 미 서부지역과 북쪽
중서부 지방에서 겪는 심각한 물 부
족 현상을 지적하면서 최악의 경우
시에라 산맥 빙원(氷原)의 90%가 없
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에라 산
맥의 빙원은 미국 서부지역 농업용수
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로 위기 처한 호주 대
륙=호주의 기상이변은 심각하다. 남
부에서는 연일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에다 수심일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북부에선 갑작스런 폭우
로 범람과 침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
다고 현지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특히 남동부 빅토리아주, 뉴사우스
웨일스(NSW)주 남쪽 등지는 사상 최
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빅토리
아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 8일 현
재까지 총 35명이 사망했으며, 골프
장을 비롯해 수백채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빅토리아 주도(州都) 멜버른
은 지난 1월 한달간 겨우 0.8mm의 비
가 내렸는데, 이는 1월 강우량으로는
사상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북부지역에선 폭우가 이어졌
다. 퀸즐랜드주의 경우 강우량이
1974년 이후 35년간에 최고치를 기
록했다. 케레타스테이션 지역은 지난

재경호남협의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재경호남 협의회
2009년 신년 하례회 및 정기총회
이날 1부 예배에 대표회장 김달수목
사(영악교회)가 사회를 진행, 정평수
목사(단남교회)의 기도, 유광석 목사
(면목중앙교회)가 성경봉독을, 전 종신
대총장 김의환 목사가 설교에 나섰다.
증경총회장 서기행목사는 격려사를
충신대제단이사장 김삼봉 목사가 축
사를, 총무 김상현 목사가 광고를, 증
경총회장 홍정이 목사 축도로 1부 예
배를 마쳤다.
2부 직전회장 공호웅 목사 사회로
신년하례회가 있었으며, 3부 대표회장
김달수 목사 사회로 정기총회가 개최

재경호남협의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재경호남 협의회
2009년 신년 하례회 및 정기총회



2009년 1월 30일(금) 11시 용인시 만
남의 교회(정평수목사 사무)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재경 호남협의 회

신년 하례회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정
기총회로 회집 새해를 맞아 서로를 격
려하며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었다.



되어 새로운 임원드리 선출되었으며,
모든 잔무는 신임위원회에 위임했다.
재경호남협의회 신임원은 아래와 같
다.
대표 회장 정평수 목사(성남노회 만남의교회)
상임 회장 유광석 목사(수도노회 면목중앙교회)
수석부회장 정종현 목사(성남노회 영도교회)
총무 이은철 목사(한서노회 임미야엘교회)
서기 이규섭 목사(새서울노회 행복한국교회)
회계 이태신장로(수도노회 삼성교회)

2009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1. 모집과정

과 정	구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 신학 6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 계절학기(여름, 겨울) 야간: 월, 화, 목, 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 학 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여교역자(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 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학과	2년	고졸자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 계속
원서교부: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 4매

4. 특 전

-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캐어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목사 조 광 표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8 / 핸드폰 : 011-631-1977

목포만나교회 목포신 학교



Jesus 사설
용산참사를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농성자 20명과 용역직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경찰의 진압작전에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찰 간부들의 무리한 진압 지시나 명령을 밝혀낸 단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도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농성 진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관련 경찰관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반면 농성자들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농성에 가담한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연합 간부 등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것이

다. 검찰 발표로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은 대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깔려있는 매듭은 아니었다. 검찰은 화재를 일으킨 시너 투기자와 화염병 투척자를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또 사건 초기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도 '부실·능장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검찰은 이번 발표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기보다 자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6명 사상의 도의적 책임에서마저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 작전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유감을 표한 것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경찰은 시위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등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 재발을 막는 길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지금 같은 허술한 제도에 애매에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전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철거민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킨다. 다행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거민 문제를 포함한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입자 지위 회복, 분쟁 조정 공적기구 설치 등 세입자 배려 정책을 약속하고 있는 점이다. 용산 참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北, 미국의 잇단 메시지 잘 읽어야

미국 백악관이 "터프(견제)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한 대북정책 기조를 공식 천명한 데 이어, 미 의회가 이 같은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펴야 한다고 주문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초당적 인사로 구성된 미 의회 대당상 상무기(WMD)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의 보르 그라이엄 위원장은 어제 하원 군사위 증언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확확한 방지체제에 당면하고도 시급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은 두 나라가 핵을 포기할 경우의 인센티브와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종합적인 조합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영원히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같은 노력이 실패하면 곧바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위험을 북한이 느끼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데니스 블레이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4대 단계 외교, 이주의 하나로 지적했다. 조일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비롯한 일단의 민주당 소속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비핵화 3단계 과정에서 경수로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이 경수로로 요구할 경우, 6자 회담의

나머지 당사국들은 이 문제에 관해 다시 논의해야 하며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경험도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판단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적어도 부시 행정부 때의 강경일변도와는 달리 융의중도하면 서도 분석적이고, 당근과 채찍을 정확히 구분해 구사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 북한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해졌다. 치고 빠지는 식으로 재주를 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순서에 일각해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후안무치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두 단체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전교조 지회장을 지낸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 할 조직이 상처를 받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강요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가중시켰다.당연히 뒤따라야 할 사건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이라고도 도덕적 우위를 거론할 자격이 있을까. 민주노총의 도덕성 마비는 한술 더 떴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식적으로 확

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깊은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도 부족할 판에 참으로 한심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했다. 마침내 이석형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성폭행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의 체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민주노총 내부는 강경·온건과 간 주도권 다툼으로 어수선했다.당연히 뒤따라야 할 사건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이라고도 도덕적 우위를 거론할 자격이 있을까. 민주노총의 도덕성 마비는 한술 더 떴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식적으로 확

됐던 전교조가 이번에는 조직 보호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했다. 전교조는 뒤늦게나마 이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인다고 하니 사건은 폐 경위와 관련 당사자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전교조는 이를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민주노총은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정도로 이번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 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민주노총이 아닌가.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특세한 강경파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이 실제로 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나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막5:25~34)

1.내 잘못에 당하는 고난입니다(25-26)
열두해 혈투증을 앓는 여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그여자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없이 살았기 문입니다. 그리고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하지 아니한 탓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죄을을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할 생각도 없고 자기 일에만 골몰하며 살았습니다.또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았는데도 전혀 감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열두해를 헛고생하게 되었고 못고치는 병에 시달림을 받았고 있던것도 다허비하고 말았습니다.이런 불행과 고난은 전적으로 그여자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2.나로 나 되게 하는 고난입니다(27-29)
열두해 혈투증을 앓고 있던 여자는 본래의 자기 아닌 자기를 살고 있었습니 다. 즉 "하나님이 전혀 바라지 않는 나"를 살아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민이면서도 "선민의 나"를 잃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여자는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찾았고 또 '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난이 '예수 소리를 듣는 나'로 만들었습니다.이런 불행과 고난은 전적으로 그여자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3.예수를 증거 하는 고난입니다(30-34)
열두해 혈투증을 앓던 여자가 병고침을 받고서도 예수를 증거할 생각은 전혀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 다.
이때 주님은 그여자를 기어이 찾아내서 간증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 여자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혈투근원이 곧 마르더라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결국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간증 끝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이 선포하였습니다.그 여자를 통해서 구원의 주가 증거되었습니다.인간을 죄와 죄과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뿐입니다.그리고 그녀를 통해 평강의 주가 증거



김동락 목사(본지 상임이사)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병에서 놓여 건강" 즉 병의 뿌리가 뽑히는 평강의 주님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고난은 주님을 나타냈고 증거하였습니다.

소록도를 다녀와서



1년이 넘도록 길 떠남을 준비하며 주님께 간구했던 마음에 소원 2009년 1월 30일 새벽에 길 떠남은 소록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충무로 세우고 후원자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찾고 동역을 청하며 하나님 이 보내시는 곳을 향한 설매임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일길 소망 했습니다. 함께 동역하려고 마음 다지는 이 름들에게 하느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기를 도와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 의 가는 길에 훼방자들을 멀리 하시고 거룩한 사역에 갈 장이들의 일을 봉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아름다운 섬길 들이 흠어짐이 없기를 지켜 주시길 소망 했습니다.
소록도 병원 관계자와 통화... 이장

님과 통화... 중앙교회 장로님과 통화...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릴 보내시려고 준비하셨던 곳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어 하는 곳 소록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성교회 만나야 할 사람들은 병세가 깊은 성도들과 미지리 교회,
그곳 김지상 장로님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그곳에 보내심을입는 것이었어
우린 무익한 중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는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허락 된 섬김과 나눔 통함을 얻을 수 있기를 도와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 의 가는 길에 훼방자들을 멀리 하시고 거룩한 사역에 갈 장이들의 일을 봉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아름다운 섬길 들이 흠어짐이 없기를 지켜 주시길 소망 했습니다.
소록도 병원 관계자와 통화... 이장

도록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했습니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미 예비하신 그



일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강하고 담대한 길 떠남을 준비했습니다. 일천원의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가슴 아픈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후원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커다란 예수의 후원금을 송금해 주신 분도 계셨고 지갑을 몽땅 털면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와 손잡아 주신 소중한이름들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어준 사랑 가슴에 가득 품고 남도 천리 길을 달려 배를 타고 들어선 소록도 사진 한장 담아내는 것도 송구스러웠던 시간이고 눈물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한센씨 병을 천형처럼 다루며 박해하던 일본의 만행 가득했던 잔상들이 섬 곳곳에 산재해 있었고 제 몸을 빌어 낳은 자식조차 가슴에 품어 키울 수 없었던 안타까움의 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 보는이의 가슴을 시리게 하였습니다.
새벽 3시면 자리에 일어 불편하신 몸을 전동차에 의지하고 앉을 못 보시는 어르신은 그조차 어려우시어 갈은 불편함을 겪으시는 이웃의 몸을 빌어 교회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새벽 종을 치시고 3시 30분에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 병으로 무디어진 손 마

다로 건반을 두드리시는 장로님 반주에 맞추어 당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여자 집사님들이 특송을 부르십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예배이며 기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인지 깊이 묵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신 후 교회를 청소하고 마을을 청소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 통째되는 마을에 들어선 우리들은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파스와 친절하게 살펴 주시며 마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아침을 들고 여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돌아오기 위해 배를 타기위해 선박에 대기하며 녹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라 여기며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섬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라 여기며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전춘자 권사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성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혁신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확실한 동기부여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전국교회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기관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알렐야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릴수 있음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참이교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요구장소	매일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09-10
TEL. 031-384-6826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송미순 목사

지역으로 세계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라는 목회 비전의 큰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 성장하고 있는 대한에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를 만나보았다.

술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좋아!” 일사각오의 결심으로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송미순 목사, 그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목회비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15년 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앞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사경을 헤매며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름에 달려갔듯이, 저 역시 당시 섬기고 있는 영광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이면 지친 몸으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교회를 40분이 걸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때 주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강단 앞에서 기도를 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혼자 남아 두 손을 높이 들고 4시간을 기도를 드렸으며 전혀 팔이 아프지않고 힘이 솟아나며 그때 주님의 강력한 힘과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강단 앞에서 4~5시간 오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체험했으며 그 때 양변에서 치유되고 해방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아프고 괴로웠던 모든 질병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소문이 나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시련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도 안한 집사가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지였요. 잘못된 집사라고 폄하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그 어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 송미순 목사



떤 시련과 고난 핍박도 견디며,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날이 새기까지 매일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고 평소 잘 아는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신학교에 갈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돈도 없는데 신학을 어떻게 합니까?”하고 거절을 했지요. 그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집사 때부터 알고 지냈던 박지혜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신학교를 가라며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셔서 그때 사당동에 있는 종신대에 입학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종신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6개월 만에 그동안 빚진 돈 50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모든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다니면서도 돈이 없어 고생해 본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2002년도에 강도사가 되어 구리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해 8월 15일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

다. 구리시에서 2005년 5월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교회 이사를 한지 1년 7개월쯤 됩니다. 1년 7개월 동안 강단에 자리를 펴고 매일같이 밤이면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현재 40여 명이 등복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8시 기도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낮 2시 특별 찬양치유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음을 봅니다.

저의 목회계획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군이 되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힘없는 인생들이 힘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고, 낙심, 좌절, 절망, 실망하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서 심령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고, 가치관이 변화하고, 사상이 바뀌



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비전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선교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에 교회를 몇 개 세우는 것이며, 다음으로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약한 교회들을 도와 선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마지막 소망은 중·고등부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성훈련에 대한 방향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말씀으로 복을 받고 찬양으로 열고, 기도로 뚫고 나가고,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교회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오직에 수반입니다. 그리고 강단이 쉼터입니다. 강단에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다가 모든 일생을 마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방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자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 안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물질도 내 건강도 성도 한분 한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초치일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영혼을 보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이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그 넘침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파름것이며 주님만 바라보는 일관된 신앙으로 정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강신숙 목사』 “암, 환자돕기 자선찬양성회”가져

연예인 목회자 부흥사 치유선교 협의회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는 월드미션문화신문 발행인 손재규 목사를 돕기 위한 기도찬양성회를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에서 가졌다.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는 담도암으로 일원, 오랜 투병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손재규 목사를 돕기 위하여 “암, 환자돕기 자선찬양성회”를 열어 성금 전액을 부인 이준숙 사모에게 전달했다.

이날 암투병 환자돕기 자선찬양성회에 앞서 김형곤 김사라 목사가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낭독하고, 인도 케니카파 박남선 선교사, 나이지리아 오프라 목사 등이 선교보고를, 차민선 목사, CCM송 강상구 전도가 개회 송을, 감사 문지영 목사의 건강기도, 김용남 목사가 개회연주에 나섰으며, 변영선 목사가 대표기도를, 강신숙 목사, 박에스터 목사 등이 특송을, 박남선 목사가 성경봉독을, 상임고문 전영준 목사(본지 이사장)가 설교에 나섰다.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가 헌금찬송과 임원서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박에스터 목사, 변영선 목사가 각각 기록문화예술회를 위하여, 부흥사를 위하여 기도

를, 윤병희 목사, 원덕희 장로, 이희성 목사 등이 선교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또한 윤병선 목사는 담도암 손재규 목사 폐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운영총재 김성수 목사, 김사라 목사 등이 축사를, 부총재 박성기 목사, 감사 강영석 목사 등이 격려사를, 오현석 목사가 권면을, 상임부총재 배경명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암투병 환자돕기 자선음악회는 김용남 강신숙 목사 MC로서 막이 올랐으며, 김용남 목사 강상구 전도사 등이 연주 및 축가가 있었으며, 김미선 목사가 기도를, 강신숙 목사가 “옴 그리고 나, 참사랑” 등, 두 곡을 찬양하고, 복지선교회3인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꽃 찬양” 등의 무용을, 찬양국장 박승국 선교사의 찬양과 유명자 집사의 국악찬양에 이어 강신숙 목사, 복지선교무용팀 등이 405장 찬송으로 선교무용을, 김근우 강도사, 작곡가 남보석 목사, 김미선 목사, 가능교회찬양단 변영선 목사 등이 각각 찬양에 나섰다.

또한 박희경 김숙희 선교사가 선교무용을, 박에스터 차민선 김용남 목사, 윤정미 은혜비 목사와 민용기 전도사, 강신숙 목사가 각각 찬양을, 참석자들과 순서자들



이 다함께 휘날려를 가졌으며, 상임총재 김성수 목사 축도로 막을 내렸다.

이날 식전행사:성인순·조혜성·윤정미·박광환 목사

기도:박명희목사,박성재 전도사
피아노반주:김포 서머나교회 은혜비 목사
1부사회:작곡가남보석 목사

정기남 기자(02-741-0031) jgn88@paran.kr

한국부흥사협의회 2009대상 시상예배

한국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정민철 목사는)는 지난 2월 6일 오후 2시 부천시 중동중동중앙교회에서 한국부흥사협의회 2009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부총재 장창운 목사(열린찬양교회)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한국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가 기도했다. 열린찬양교회 서영아, 김현희 자매가 “충성하게 하소서”라는 특별 찬양을, 총재 피종진 목사(삼서울중앙교회 원로)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 2009신년대상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주신 달란트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복 충성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이어 분철 총재 피종진 목사는 기도부른 유무현 목사, 부흥부문 정대중 목사, 선교부문 정기순 목사, 찬양부문 이순옥 선교사 등 각자에게 대상을 시상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는 인사에서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전개하시며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대상을 안은 수상자들과 참석한 가족들과 귀빈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맡겨진

사명 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깊이 감추어진 모든 것들까지도 파헤치며 어두운 과거 속으로 사람들 끌고 들어가는 나쁜 일들을 저질렀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며 꾸짖으셨으며, 세례요한 역시 그들을 향하여 ‘목사의 자식들’라고 했다.마37,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앞으로의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이끌어



내서이 소망이라는 미래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래를 펴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신 분이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꽃매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지도자들이 되자”고 했다. 이날 한국부흥사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 축도로 예배와 2009대상 시상식을 마쳤다.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로...

매일 밤마다 8시 기도회
매주 목요일 낮 2시 특별찬양치유

▶ 특별찬양: 김명희 ▶ 드림: 손정철 ▶ 피아노: 김윤미

1. 초대교회역사가 나타남
2.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
3. 신권 영권 인권 물권이 열려지는 축복
4. 각종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5.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6. 힘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신학생 · 목회자 · 사명자 영성학교 오픈 준비중

교회부설 토요공부방(초·중·고) 및 악기지도(무료-토요일)
피아노, 드럼 플룻 문의: 010-6677-6886

예배 시간 안내	
주 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 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목요찬양치유집회	오후 2시
금 요 예배	오후 8시
학생 예배 (토)	오후 5시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시
8시기도회(매일)	오후 8시



강사 송미순 목사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재정상담 세미나

강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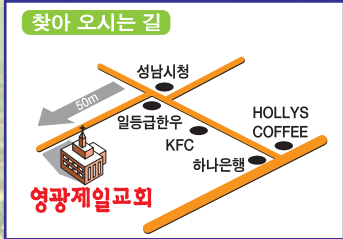
- 소득지출로 보는 우리가정
- 위험관리(보험알고 가입하자)
- 세금절약예적금·펀드 이해하기
- 돈에 시달리지 않는 가정을 위한 재무설계

보안복지부와 함께하는 포드재무설계세미나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재정상담 세미나
세미나 수강신청서와 신청도면이 보내지고,
주말과 함께하는 평일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들 바쁘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쁜 미니가게주머니를 드립니다.

강사 프로필

- 포드재무설계 상담위원
- 한림성심대학 재테크세미나
- 네이버재테크 상담위원
- 네이버전문가 컬럼니스트
- MBC 생방송화제집중 부채클리닉현 출연

세미나 참석 문의전화: 김윤미 010-6677-6886
연 031-756-9826
세미나 당금 1시 8천원까지 입금합니다.



지금 전화 한통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제일교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제25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취임예배 및 신년하례

영풍회, 지구촌에 기도와 성령의 불길



한국기독교 영풍회(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 예장 산성교회 본당에서 제25대 대표회장 취임예배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다. 실무회장 김사라 목사가 기도를, 공동회장 강진찬 목사가 구호제창을, 공동회장 박상호 목사가 성경봉독을, 성산교회 예배에 섰 몸찬양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예장합동 총회장 최병남 목사가 "부흥의 불길"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와 축도가 있었다.

이어 실무회장 고영배 목사의 사회로 2부가 진행되어 직전대표회장 라성열, 최능력 목사가 이임사에서 나섰으며,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가 라성열, 최능력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사무총장 정상임 목사가 대표회장 약력과 가족소개를 하고, 1대 증경회장 우재돈 목사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에게 취임패 전달과 대표회장 오목사가 취임사를 회장단 및 실무임원 소개 및 위촉패를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가 전달했다.

이날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제13대 증경회장 김정일 목사, 제17-18대 증경회장 김기성 목사 등이 각각 축사를, 한영신학대학총장 한영훈 목사, 제9대 증경회장 김수을 목사, 제19대 증경회장 박종철 목사 등

이 각각 격려사에 나섰다.

제3부 신년하례회 및 친교의 시간을 공동회장 천운대 목사 진행으로 가졌으며, 새출발을 위한 기도를 상임총무 김의겸 목사, 케익절단을 대표회장 내외, 증경회장단과 실무회장 이마데 목사가 오찬기도를 했다.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기독교 영풍회 제25대 대표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증경회장님들, 직전대표회장님들, 선후배 동료목사님들께 감사의 전하고, 성산교회 당회원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항상 베풀어준 사랑하시는 가족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최선을 다해 나이갈 것을 피력하고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도록 건인 자역할을 주문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한점의 불씨가 되어 한국교회 영적대각성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고통하는 세계를 향한 것을 주문하고 다짐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웨신)총회부흥사협의회 제3기 부흥강사 연수 · 연장교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 1)

일 시 : 2009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부터-저녁 9시까지
장 소 : 초원교회(담임 김태곤 목사/서울 구로구 구로2동 725-9)
대 상 : 웨신총회 소속의 목사, 준목, 남, 여 전도사/총회산하 모든 신학교 남,여 신학생
연수회비 : 당 일 등 록 -기초회원 7만원/신입회원 12만원
온라인 등록 -기초회원 5만원/신입회원 10만원

★ ★ ★ 기초회원은 2009년 1월 21일-22일(박 2일)의 2차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
★ ★ ★ 남, 여전도사와 남, 여신학생은 온라인 등록 5만원 당일등록 7만원입니다

등록방법 : 온라인등록/당일 등록
입금계좌 : 농협 170273-56-042746 (장창운)
제출서류 : 지원서(본회 소정양식)1통, 사진 2매
홈페이지(게시판 자료제출 코너)로 제출 가능.
등록문의 : 02)862-3191 / 010-5678-9950 (대표회장 장 창 운 목사)
장소문의 : 02)839-9188 / 010-9492-1770 (외무총장 김 태 곤 목사)

본 연수, 연장교육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4월 20일(월)-23일(목) 목포만나교회에서 개최하는 목포시민을 위한 연합성회의 강사에서 제외됩니다.

웨신 총회부흥사회 주최, 웨신 총회 남부노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목포 시민을 위한 **춘계 축복대성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표회장 : 장 창 운 목사

- 특 전**
- 교육 후 연수교육 증서와 부흥사협의회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교육 후 강단교류를 통해 설교할 수 있는 교회를 연결해 드립니다.
 - 교육 후 총회부흥사회에서 주최하는 부흥성회에 강사 우선권을 드립니다.

총회부흥사협의회 (http://www.0675.pe.kr)
02)862-3191

부 웨 신 총 회 부 흥 사 협 의 회



웨신총회부흥사협의회
Westminst General Assembly Evangelist Association

제3기 부흥강사연수교육

일시 : 2009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부터 - 저녁 9시까지 장소: 초원교회

찬양치유사 무료교육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검소 옆)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호
02)862-3181 / 010-5678-9950
주 제 : 주여 나를 고치소서-1 배가 낫겠나이더(렘 17:14)
찬양치유사 전문교육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www.0675.us

2008~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2008년

- | | | | | | |
|-----------|--|-----------|---|------------|---|
| 1월 | 1-3 수도산기도원(임영이원장)
7-10 엘리야수양관(양정석원장)
12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14-16 평강교회(백덕근목사)
21-23 울산삼산교회(장지복목사)
28-30 기도은혜교회(이강유목사) | 5월 | 5-7 성도교회(이정석목사)
12-24 성지순례
26-29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 9월 | 1-4 은누리복음회수양회(임기호총재)
8-10 광산수양관(방만석원장)
1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2-25 교단 총회
29-10/1 인천성경교회(윤양표목사) |
| 2월 | 4-8 구정주간(선교지방관)
11-13 천후산교회(김기돈목사)
18-21 이천영광교회(이인수목사)
25-27 정명중앙교회(박종현목사) | 6월 | 2-5 감림산기도원(이목원원장)
9-11 성은교회(허동석목사)
1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
16-18 성심교회(한원중목사)
23-25 변동평교회(한복희목사)
30-7.2 화동교회(김계인목사) | 10월 | 6-9 성지교회(김성중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시흥성민교회(안진희목사)
20-22 성산중앙교회(정신일목사)
27-29 평택중앙교회(김복목사) |
| 3월 | 2-5 민락중앙교회(김영호목사)
6-29 봄철축복대성회
1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4-26 무선중앙교회(박영렬목사)
31-4/3 설립기념축복성회(유재명목사) | 7월 | 7-10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14-17 중국신학교어름세미나
21-24 찬양의집(송난희원장)
28-30 수정교회(이승진목사)
31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 11월 | 3-6 석창교회(박인목목사)
10-12 와정제일교회(우남호목사)
17-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21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24-29 서광교회(박인목목사) |
| 4월 | 6-8 인천제일성결교회(장길선목사)
14-15 정기노회
18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0-23 서울성결교회(이종래목사)
28-30 성광교회(조기우목사)
24-26 복경장정 한인교회(최진길목사) | 8월 | 4-6 대안교회(김명섭목사)
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8-21 천문기도원(최정숙)
22 한열산
24-30 특별심야부흥성회(예복교회) | 12월 | 1-3 신광제일교회(조주행목사)
5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8-10 1. 마정성결교회(김달영목사)
12 2.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15-17 한영교회(임원길목사)
26-30 오봉성서사초청부흥성회 |

2009년

- | | | | | | |
|-----------|--|-----------|---|------------|---|
| 1월 | 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6-30 필리핀선교전회 | 5월 | 4-6 신성교회(김정수목사)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8-30 북미지역 연합성회 | 9월 |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15-17 주영교회(여준석목사)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
| 2월 | 2-5 해방기도원(백재욱원장)
9-11 옥산성결교회(박병정목사)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 6월 |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15-17 주영교회(여준석목사)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 10월 | 6-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7 신학생여름집중세미나
20-22 신성교회(김정남목사)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
| 3월 | 축복대성회 | 7월 | 6-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7 신학생여름집중세미나
20-22 신성교회(김정남목사)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 11월 | 3-6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3 예비다움답기도원(최민숙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3~ 2주 연속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
| 4월 |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루리교회(이재경목사)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 8월 | 3-6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3 예비다움답기도원(최민숙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3~ 2주 연속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0-5267-1434